

성도의 빛 4

1987

말 일 성 도

예 수 그 리 스 도 교 회



성도의 빛

1987년 4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이라 및 프랜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스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린.

고문 : 휴 더블류 피녹,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임즈 엠 패러모어, 테릭 에이 커스버트.

통 권 : 제252권, 제23권, 제 4 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87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연 제 환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유 성 근
 International Magazine PBMA0562KO
 PRINTED IN KOREA 4/87
 © 1987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의 빛은 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로는 월간으로 인도네시아어, 타히티어 및 타이어로는 격월간으로 그리고 아이슬란드어로는 계간으로 발행됩니다.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빛의 해외 구독료는 항공편 10,000원(미화 12불), 선박편 7,000원(미화 8불)입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40	선을 향하여 성장함	리차드 지 엘즈워스
2	대관장단 메시지 :	
	“받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	46 예, 저는 물몬입니다 데이비드 케이 스킷모어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48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8	영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다	에스닐 아코스타
	이사벨 엘 클러프	

10	로자 데 틴티	성도의 빛 어린이란
	단 엘 설	2 눈물과 나팔 수선화
		샌디 할버슨

13	예수님이 생활하신 땅	4 다 함께 나누는 시간 :
	데이비드 에이치 가너	부활절에 대한 간증
		패트 그래햄

18	방문 교육 메시지	6 경전 인물 : 여자
		7 미궁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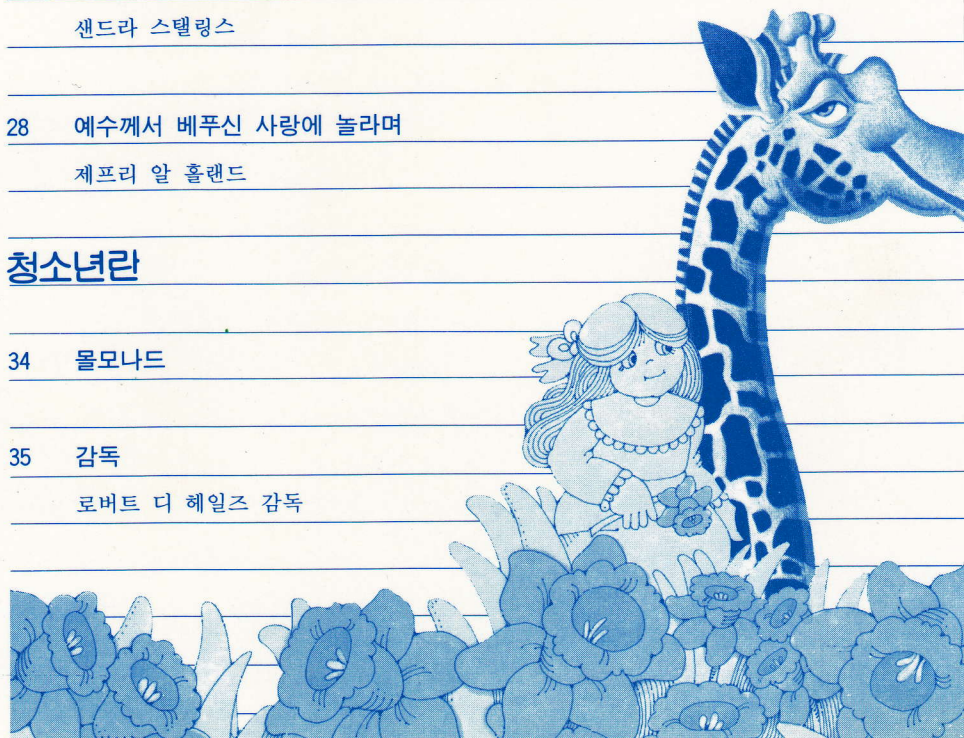
19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8 얼굴 만들기
	단 엘 서얼	도나 러그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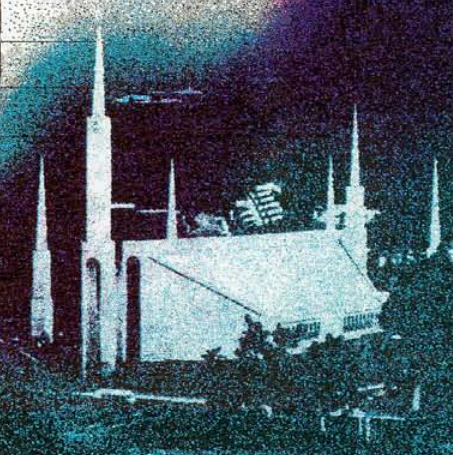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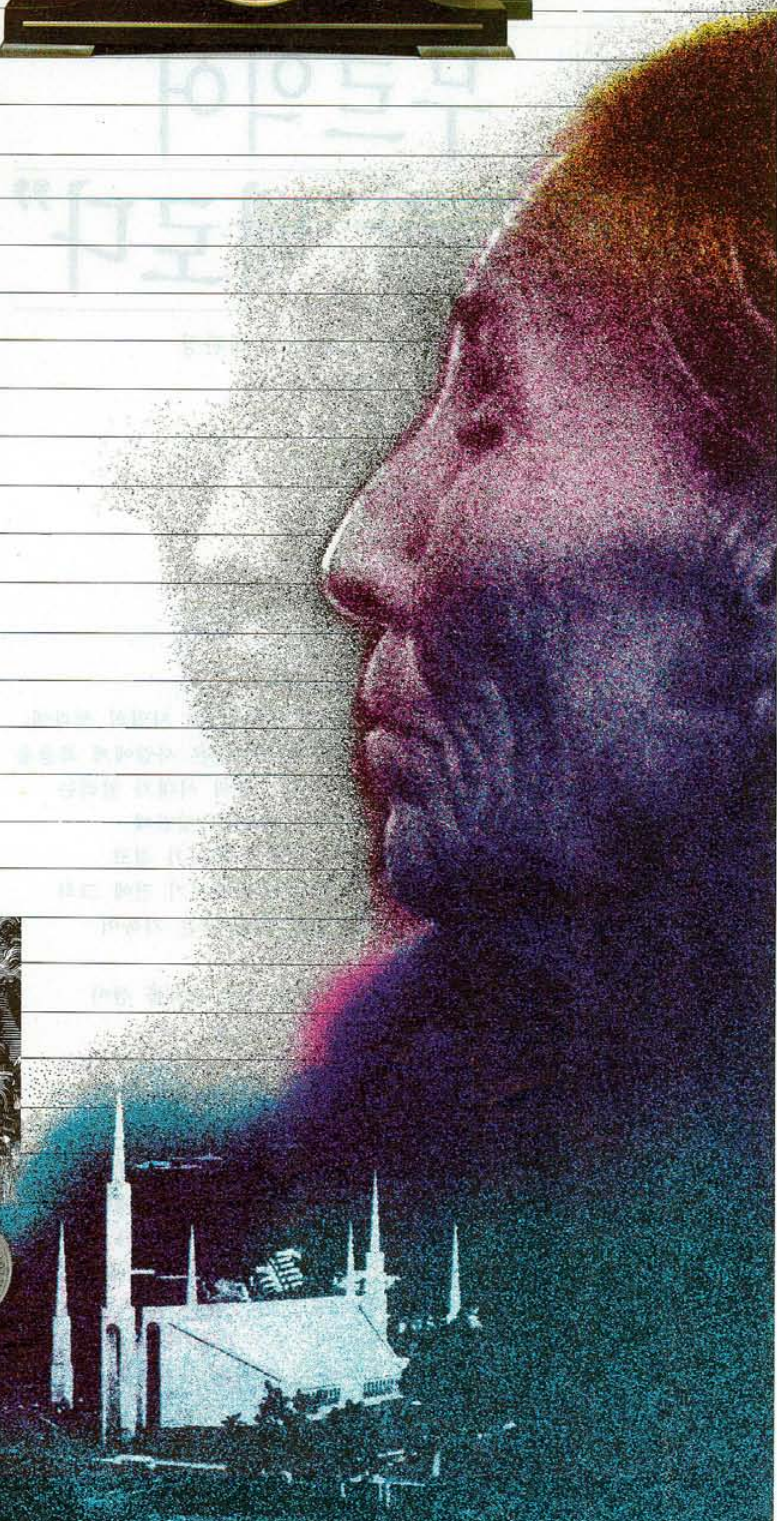
	교회 및 지역 소식	
25	순종할 신앙	
	샌드라 스텔링스	

28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제프리 알 홀랜드	

청소년란

34	몰모나드	
35	감독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





“밭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일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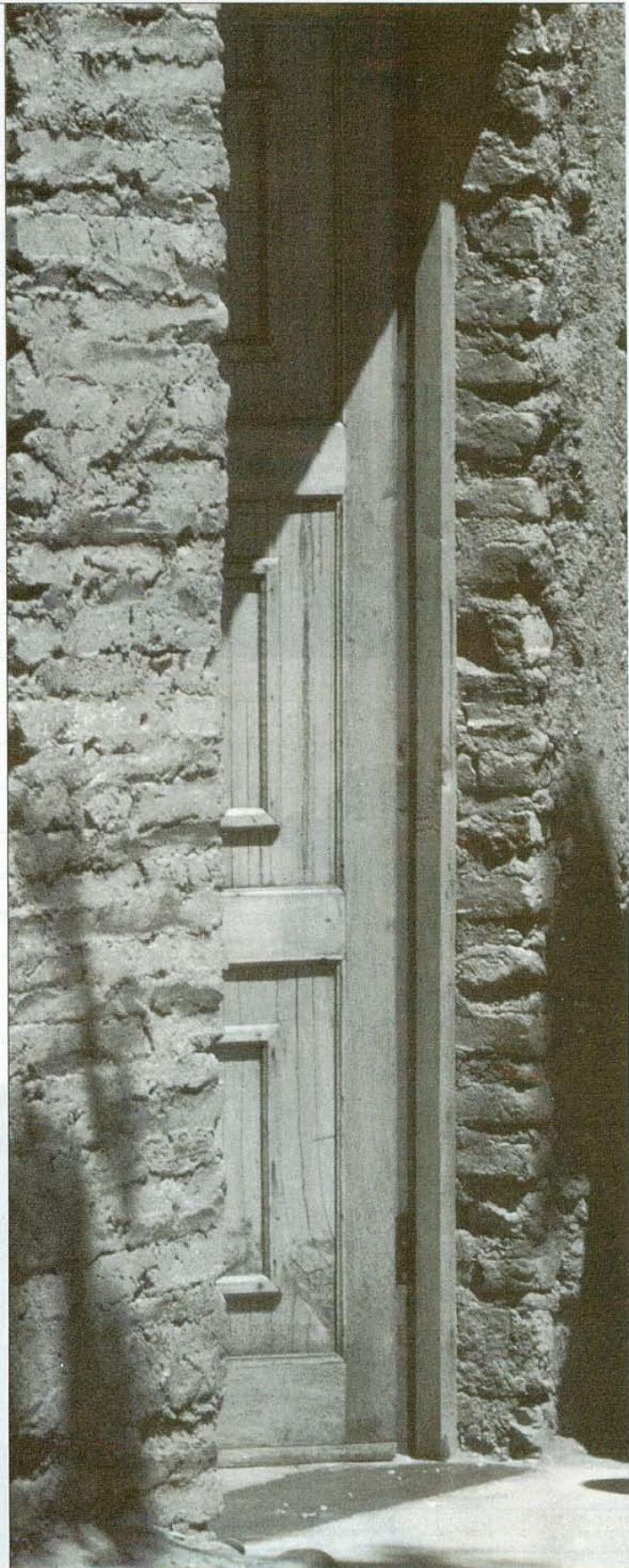
본인은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선교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이 사업은 이 경륜의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부여된 첫번째 책임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그 중요한 위치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되겠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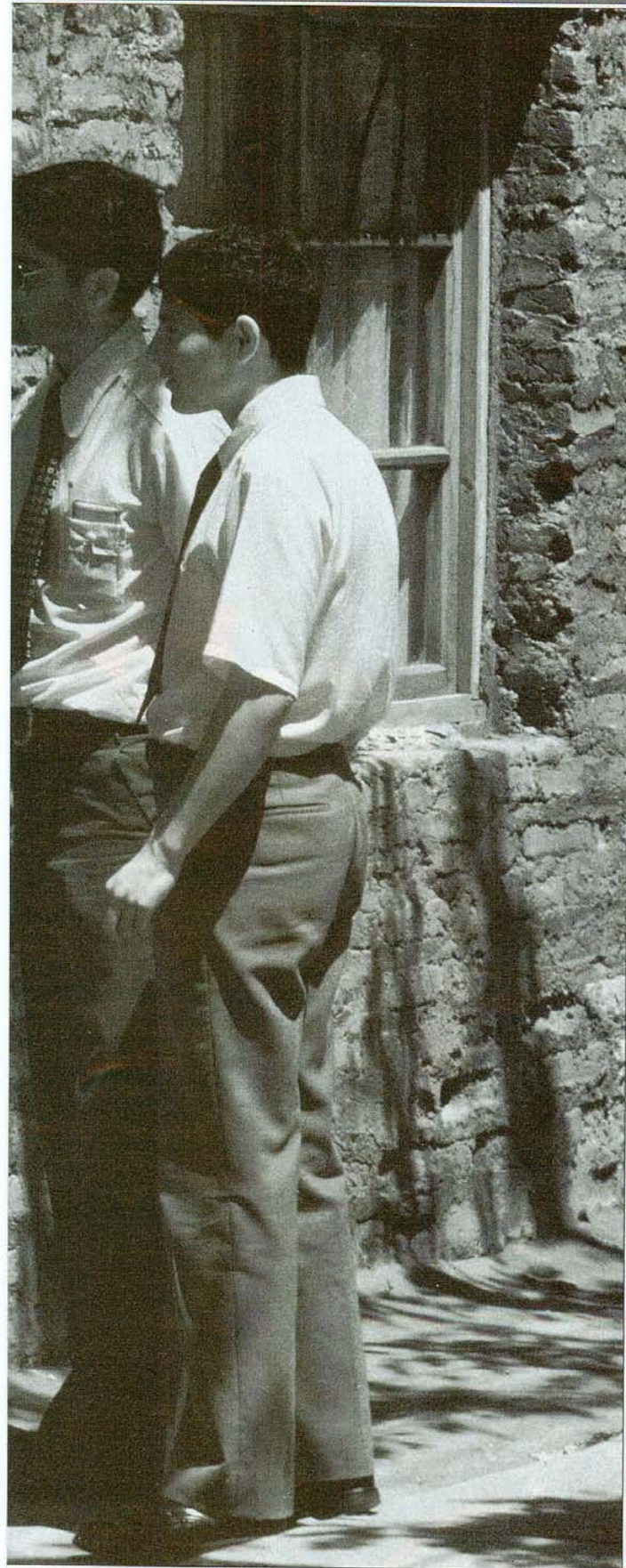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나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참으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1985년에 침례받은 개종자는 197,64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이 교회가 조직된 지 오십년이 되었을 때 교회의 전체 회원 수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현재 조직되고 있는 스테이크의 평균 회원수가 2,500명이라고 할 때 1895년에는 일흔 아홉 개의 새로운 스테이크를 조직하기에 충분한 수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업적입니다.





살아 있는 영혼

그러나 한 사람의 개종자가 통계상의 하나의 수자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개종자는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혹은 어린이입니다. 한 사람의 개종자란 그의 생활에 새로운 지식과 빛과 이해가 들어간 살아 있는 영혼입니다.

개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에 새로운 신앙이 들어오고 그 마음에 새로운 이해가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다 높은 생활 표준에 따라 살려는 새로운 열의가 생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행복과 더 많은 친구들의 세계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야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새로이 이해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개종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돌이켜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인 남자, 여자, 어린이이기 때문입니다.

1986년에는 200,000명 이상의 개종자가 있었읍니다. 이 복음이 50,000명 혹은 십만 명 더 많은 사람의 생활에 감동을 주었다면 얼마나 더 훌륭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못했으나 나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개종은 선교사가 수고한 결과이며 1986년 말 현재 선교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거나 또는 현재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이 거의 30,000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면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수자가 1987년 말까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선교사가 있다면 더 많은 개종자가 있게 되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선교사가 더 잘 준비되어 있다면, 그들이 더 효과적이 되리라는 의미도 됩니다.

되풀이되는 기적

나에게 있어서 선교사는 끊임없이 새롭게 되풀이되는 기적입니다.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는 동안 온 세상에서 그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읍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거의 똑같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같습니다. 멋진 청년과 아름다운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에 있어서 활력이 넘치며 생동적이며 열성적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매우 실질적인 면에서 낙담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말지만 쉽사리 겁을 내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름받은 사업에 대하여 헌신적이며 집념도 대단합니다. 그들은 거의 천아버지처럼 사랑하게 된 훌륭한 선교부장으로부터 인도와 지도와 영감을 받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강화시켜 주며 훌륭한 친분 즉 평생 동안 계속되는 우정을 쌓습니다. 그들은 예언과 계시의 영에 의하여 부름받으며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교회에 끊임없이 새로운 혈액과 새로운 생명을 불러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선교사로 봉사하는 청년과 청년은 결코

다

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업은 이 경륜의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첫번째 책임이었다.
그것은 그 중요한
위치에서 결코 옮겨질
수 없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얻지 못하는 훌륭한 성품과 힘을 얻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이 사업이 참되며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봉사하려는 열의를 갖고 집으로 옵니다. 그들은 앞으로 받을 책임을 갖고 성장할 기초를 닦아 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만 명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선교사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자신이 무엇에 관하여 말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여러 국제 지역의 지역 회장단으로부터 보고를 들을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보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는 총 640,000,000명의 인구 가운데 단 270,000명의 회원밖에 없습니다. “수수할 것은 많되 일군은 적으니”(마 9:37) 자 이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더 잘 준비해야

나는 선교 사업은 일차적으로 신권 책임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선교 지역에서 훌륭하게 봉사하고 있고 그중에는 장로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자매도 있지만 근본 책임은 우리의 젊은 남성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좀더 일찍 젊은 남성들을 선교 사업으로 인도해야 하며 그들을 좀더 잘 준비시켜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어떤 농촌 지역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선교 사업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코에 주근깨가 있고 얼굴에 호감이 가는 미소를 띤 만 십팔 세의 소년이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발표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을 열 가지 열거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맨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써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한 맨 처음부터 선교사로 나가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이 목적을 위하여 돈을 저축하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2. 저는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준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배웠습니다.

“3. 저는 칠 년 동안 소년단에서 활동했습니다. 저는 독수리 소년단원입니다. 저는 ‘준비를 갖추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조국에 대한 의무를 행한다’는 소년단 맹세를 수없이 외었습니다.

“4.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실천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의무에는 다른 사람과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압니다.

“5. 저는 제사 정원회 보조입니다. 저는 저의 정원회 회장인 감독님 바로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였을 때부터 감독님과 보좌께서 저와 접전하시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하여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선교사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기회이고 책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6. 저는 세미나리에 참석해서 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저에게는 훌륭한 교사와 친구가 많습니다. 저는 물론경을 읽고 연구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7.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전할 훌륭한 목표가 되어 왔습니다. 저는 소년 소녀가 있는 작은 반을 하나 맡고 있는데 그들을 다루는 것이 항상 쉽지만 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은 그것을 압니다. 우리는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8. 저는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가정의 밤에 참여했습니다. 저의 가족과 저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경전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하여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9. 저는 깨끗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선교사로 나가기에 합당하게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옛날에 맥주를 마실 필요가 없으며, 담배를 피울 필요가 없으며, 마약이 필요치 않으며, 부도덕한 일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0. 저는 학교에서 이끌고 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의 학생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 일을 좋아하며 그 일을 맡아 일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있으며 그 일로 인하여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이 소년은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물론경에 있는 암몬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도적과 싸우고 양을 보호하였습니다. 도적을 피하여 도망쳤던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제 사랑을 하고 있을 동안에 암몬은 밑에서 말을 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주시도록 기도한다면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 준비에 대하여 이보다 더 훌륭하게 요약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어린 시절에 시작하여 젊은이가 부름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준비의 윤곽을 매우 실질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명도 축복받음

이 부름은 선교사의 생활을 축복하고 그 선교사의 말을 듣는 사람의 생활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선교사가 봉사할 때 생활에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예를 들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선교사를 지원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가족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가족 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번이라도 선교사를 지원해 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교사가 선교 지역으로 나갈 때 그 가족에게 큰 유익이 온 것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사의 수를 크게 늘리려고 한다면 그 준비 과정을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교 사업 준비의 네 가지 면을 토론하고 싶습니다. (1) 영적 준비; (2) 정신적 준비; (3) 사회적 준비; (4) 재정적 준비.

선교사의 영적 준비는 가정의 밤을 더 잘하고, 아론 신권 및 보조 조직에서 더 잘 가르치고, 세미나리와 신학 연구원에 참석하고,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기 위하여 성전에 가고, 물문경을 읽도록 권장함으로써 강화될 것입니다. 모든 소년이 모사이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읽고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에 관하여 기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사이아의 아들들은…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히 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인지라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로 더욱 강하게 뭉쳐졌더라.

“그뿐 아니라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쳤느니라.”(앨마서 17:2~3)

정신적 준비. 감독단은 소년이 집사가 될 때부터 시작하여 소년들과 개인 접견을 실시하는 일에 대하여 부지런히 기도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감독단이 선교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선교 사업의 어려움에 맞서 수많은 나라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 다른 문화에 대한 필요한 적응을 하고, 부름을 받을 때 온 마음으로 선교사업에 임하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형성하도록 감독단이 도움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님이 똑같은 점에 대하여 현명하고 영감받은 권고로 이 모든 문제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준비. 사랑과 훈계로써 우리 젊은이들에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사자로서 주님을 대표하기에 합당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간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시다. 건전한 사교 활동을 권장합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과 협조하는 훌륭한 기술을 배우게 합시다. 그들에게는 선교 지역에 있는 동안에 함께 일해야 하는 동반자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동반자에게서 좋은 점을 찾고 다른 사람의 생활에서 자기 생활에 적용할 덕성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재정적 준비. 선교 사업 비용이 비싸졌습니다. 선교사 경비는 월 평균 250불이며 이 년 동안에 약 6,000불이 됩니다. 저축을 시작할 시간은 소년이 매우 어릴 때입니다. 그 저축한 돈을 안전한 은행 계정에 두고 투기적인 분야에 투자하지 맙시다. 먼저 말씀드린 그 젊은이는 자신의 선교 사업에 쓸 돈을 저축해 두었습니다. 우리 젊은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은 세상으로부터 온 선교사들

과거 몇 년 동안에 일어난 가장 의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선교 지역으로 나아가는 젊은 남녀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어떤 지역에서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사람 가운데 75퍼센트가 자기 나라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가르치고 또 동시에 미래의 힘과 안정을 쌓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교사는 자기 동포의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크게 유리합니다. 그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교회 초기로부터 시행되어 온 선교사 지원 규칙을 고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즉 선교사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은 그 본인과 그 가족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출발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젊은이가 전적으로 남에게 의지하는 것보다는 선교사로 출발하는 것을 일 년 늦추고 자신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젊은 남녀가 재정적인 도움 없이 봉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와드와 정회회가 가능한 한 도와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교회 회원의 현금으로 이루어진 본부 선교사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능력이 있고 적절한 경우에는 본부 선교사 기금에 현금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기금은 그동안 수많은 젊은 남녀가 봉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

그렇게 현금할 때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옵니다. 그분은 선교사를 돕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입을 것을 주거나 돈을 주는 자는 결단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교서 84:90~91)

우리 모두 선교 사업을 나가는 일과 선교사를 돕는 일이 우리들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여 권장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내려져 있습니다. 복음을 온 세상의 백성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훌륭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왕국을 세우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복음을 가르치라고

명하신 분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충실하도록
간구합니다. □

가정 복음을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업은 교회와 교회
회원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2.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3. 더 잘 준비된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4.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네 가지 면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영적으로, (2) 정신적으로, (3)
사회적으로, (4) 재정적으로.

토론시 유의 사항

1. 선교 사업에 관한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한다.
2. 이 기사 내용 중에서 가족이 함께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이 토론은 방문 전에 가장과 함께 이야기하면 더
훌륭한 토론이 될 수 있을까? 감독이나 정원회 지도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교회의 선교사 힘-선교사 토론을 공부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남; 부부팀(아리조나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 부부); 자매
선교사들(한 자매가 구도자가 될 만한 사람에게 물문경을 선물하고
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청년과 청녀는 결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얻지 못하는
훌륭한 성품과 힘을 얻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영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다

이사벨 엘 클러프

나는 쇼핑을 끝낸 다음 의도적으로 그 시끄러운 물건 사러 온 사람의 긴 줄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그 경리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아마 단지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좀 조용한 곳으로 이끌려 왔을 것이라고 느꼈다.

이유야 어쨌든 잠시 동안이나마 결정하지 않고 조용히 서 있는 것은 비교적 편안한 일이었다. 내 앞의 두 고객이 경리와 계산을 끝내자마자 나도 계산을 끝내고 갈 수 있으리라. 십대의 딸이 내 뒤에 줄 서 있었다. 나는 지친 상태로 잠시만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 앞의 중년 남자가 불안해 하기 시작할 때가 되어서야 우리 줄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운터의 맨 끝을 훑듯 보았을 때 쇼핑용 손수레에 식료품이 가득 담긴 갈색 가방 네 개가 눈에 띄었다. 초라한 복장의 백발 할머니가 카운터에서 갖고 있는 돈을 세고 있었다. 그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살살이 뒤지면서 잔돈을 좀더 찾고 있었으나 헛된 일이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나는 그녀와 좀더 가까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때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특수한 사람들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놀랄만큼 참을성이 많았으며 어떤 사람의 얼굴에도 싫은 표정이나 조롱하는 표정이 없었다. 나는 마음 속으로 “도와 주어라.”는 말씀이 들리는 것같은 가운데 따뜻한 영이 홍수처럼 마음으로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 할머니는 찾는 일을 멈추고 조용하게 “돈이 그것밖에 없군요.”라고 말했다.

그 경리는 죄송한 듯이 갈색의 가방으로부터 자그마한 파일 혹은 야채 봉지를 꺼내서 저울에 달아 보았다. 금액이 부족했다. 경리가 자루에서 두번째 봉지를 꺼내서 달아 볼 때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떠올랐다.

“아니, 그것은 있어야...” 두번째 봉지를 빼내는 동안 그녀의 음성이 다급하게 울려왔다.

잘못 도와 주었다가는 더 어색해지리라는 것을 알고 나는 마음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라고 기도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가만 있는 것보다는 시도해 보고 잘못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나는 내 앞의 손님 너머로 몸을 굽히고 경리에게 “얼마가 더 있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누군가가 관여하는 것을 고마와 하면서 “팔백 원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내 계산서에 포함시키세요.”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영이 “지금 돈을 내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러지 말고, 여기 천 원이 있어요.”라고 말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 너머로 내 물건과 그 돈을 카운터에 놓았다. 그 경리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그도 돕고 싶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았다. 그는 “저도 반을 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내가 내 놓은 지폐 위에 동전을 몇 개 놓았다.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은 충동을 참고 그에게 고맙다고 했다. 갑자기 나는 하늘이 열리고 우리를 모두 예기치 않게 포근하게 감싸 주는 것같이 느꼈다. 우리는 모두 돕고 싶어했던 것이다.

그 젊은 경리가 곧 식료품을 짐에서 꺼내는 것을 멈추고 그 할머니의 자루에 물건을 도로 넣었다. 그러자 침착하게 또 자신있게 그 할머니가 몸을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 할머니는 더 똑바로 서면서 “누가 이렇게 해주었습니까...”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다음과 같이 도움을 구하는 동안 눈물이 앞을 가렸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 주십시오. 우리가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절로 대답이 나왔다.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할머니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할머니도 저의 입장이었다면 저처럼 하셨을 거예요.”

그 백발의 할머니는 안심하기 시작했다. 떨리는 것이 멈추어졌다. 그녀의 얼굴에 천천히 생각에 잠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내가 안다는 사실에 놀란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했으리라”는 것을 아는군요.”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활짝 미소를 띄고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라고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할머니는 품위있게 돌아서서 쇼핑용 손수레를 밀고 문 밖으로 나갔다.

값을 치르기 위하여 줄 서 있는 우리에게 일종의 경외심이 일어났다. 갑자기 나는 더 이상 피곤이 느껴지지 않았다. 내 앞에 선 손님이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짐으로 가는 길에 딸이 침묵을 깨뜨렸다. “어머니가 그 할머니를 도와 준 방식이 정말 훌륭했어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영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다. 내가 한 일은 도움을 주시도록 기도한 것뿐이었다.” □



로자 데 틴티 : 구아테말라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함

단 엘 설

“어머니는 성전에 가실 때마다 자신의 영을 살찌우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도 성장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라고 십육 세 된 헨리 엘리엇 틴티가 어머니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로자 크루즈 코르도바 데 틴티에게는 구아테말라시티 성전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 한 가지 꿈이 실현된 것이다. 자녀들은 그녀가 언제나 훌륭한 여성이며 어머니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헌신해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1979년에 침례받음으로써 교회 부름을 통하여 더 큰 봉사를 할 기회를 받게 되었다. 예를 들면 최근 그녀는 두번째로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서 봉사할 기회 가운데 최우선이 되는 것은 구아테말라시티 성전이 1984년 12월에 헌납된 이후로 성전 봉사자로 부름받은 것이었다.

이십 세 된 딸 레이나는 틴티 자매가 말일성도가 되기 전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도덕적인 원리를 가르치려고 애쓰셨읍니다.”라고 회상한다. 틴티자매는 자기 조상의 종교에서 찾은 선한 것을 받아들였으나 그것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뭔가 더 훌륭한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읍니다.”

로자 데 틴티는 장녀인 멜리다(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의 도움을

통하여 그 “더 훌륭한 것”을 찾았다. 그 딸은 미국에 살면서 우리 교회에 가입했다. 멜리다는 선교사들을 구아테말라에 사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두번째 가족에게 보냈다. 틴티 자매의 자녀들은 1978년에 침례받았으나 남편이 교회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틴티 자매는 다음 해에 남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침례받을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일 년 후인 1980년에 로스앤젤리스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레이나는 어머니가 예를 들면 집에서 쫓겨난 젊은이와 귀환한 자매 선교사에게 일시적인 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언제나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 적극적이었다고 말한다. 틴티 자매의 선함과 교회에 속한 것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다. 레이나는 이웃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틴티 자매에게 가 보세요. 그녀가 도와 줄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헨리는 그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올바르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게 해주는 일을 아주 잘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비록 어머니에게 “신권이 없지만 남자의 생애에 있어서 신권의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틴티 자매는 헨리의 생활에 남자의 인도가 필요할지 모르겠다고 생각되면 쌍둥이 아들인


마우로 혹은 에스투아르도에게 부탁할 수 있다. 마우로 틴티는 자기 와드(구아테말라시티 구아테말라 라스 빅토리아스 스테이크의 라 라구나 와드) 감독의 제일 보좌이며 에스투아르도 틴티는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이다.

이 쌍둥이인 마우로와 에스투아르도는 어릴 때 즉 틴티 자매가 교회를 알기 훨씬 전에 몹시 앓았다. 틴티 자매는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낫게 해주신다면 그들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틴티 자매는 두 아들이 선교사 부름을 받을 연령이 된 1980년에 그 맹세를 기억했다.

그 쌍둥이 형제는 동시에 선교 사업을 했으며 어머니가 그들의 선교사 기금을 부담했다. (로자의 딸인 멜리다도 역시 선교사로 봉사했다.) 훌륭한 미망인이 어떻게 그들의 선교사 기금을 마련했나? 틴티 자매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일 따름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저는 제가 찾은 일은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그런 일에는 와드 건물 관리인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일, 선교사의 옷을 빠는 일, 심지어는 타말(음식의 일종)을 만들어서 파는 일까지도 있었다. 틴티 자매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이 아플때 까지” 일했다.

이렇게 봉사하려는 열의가 강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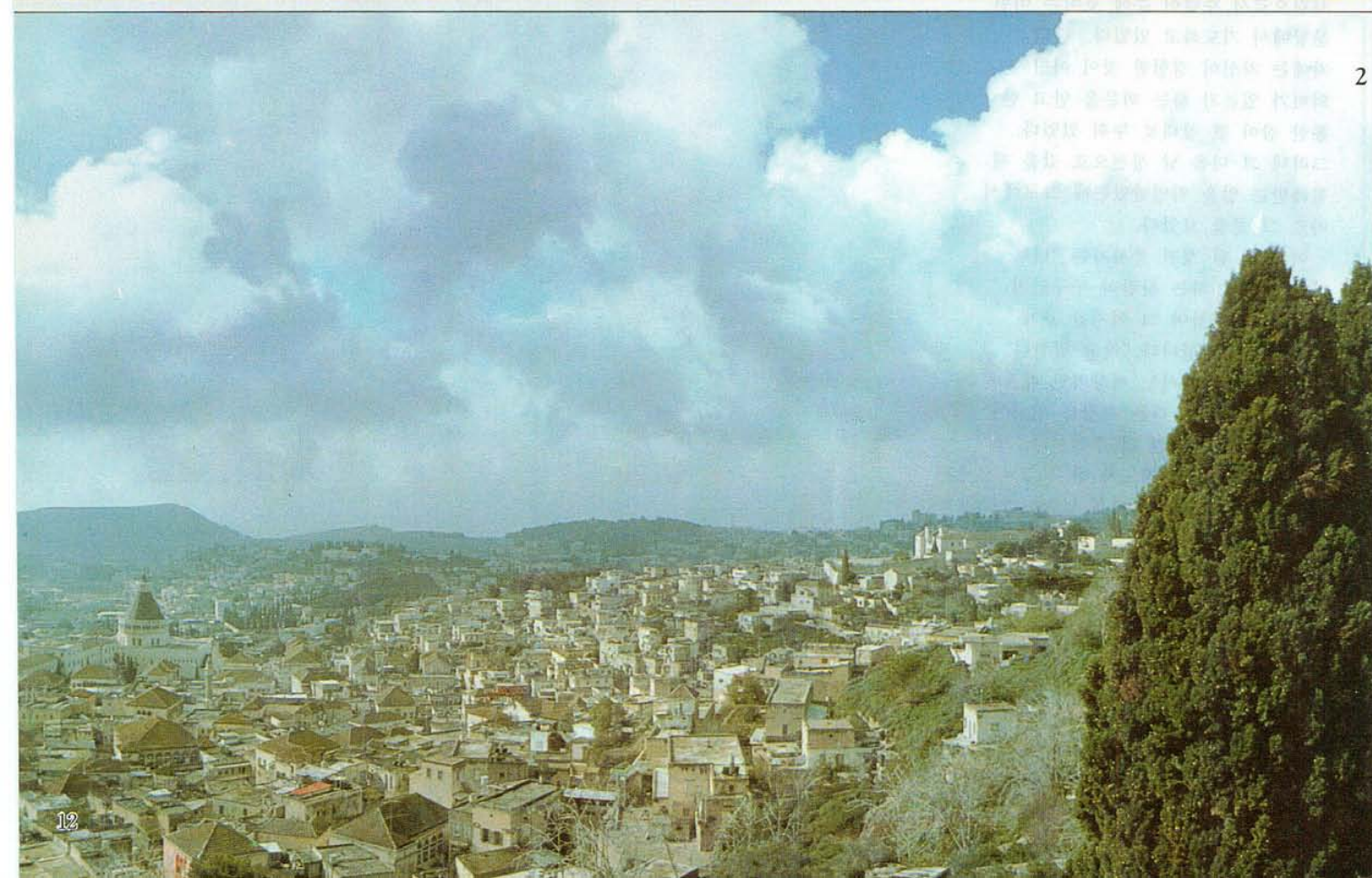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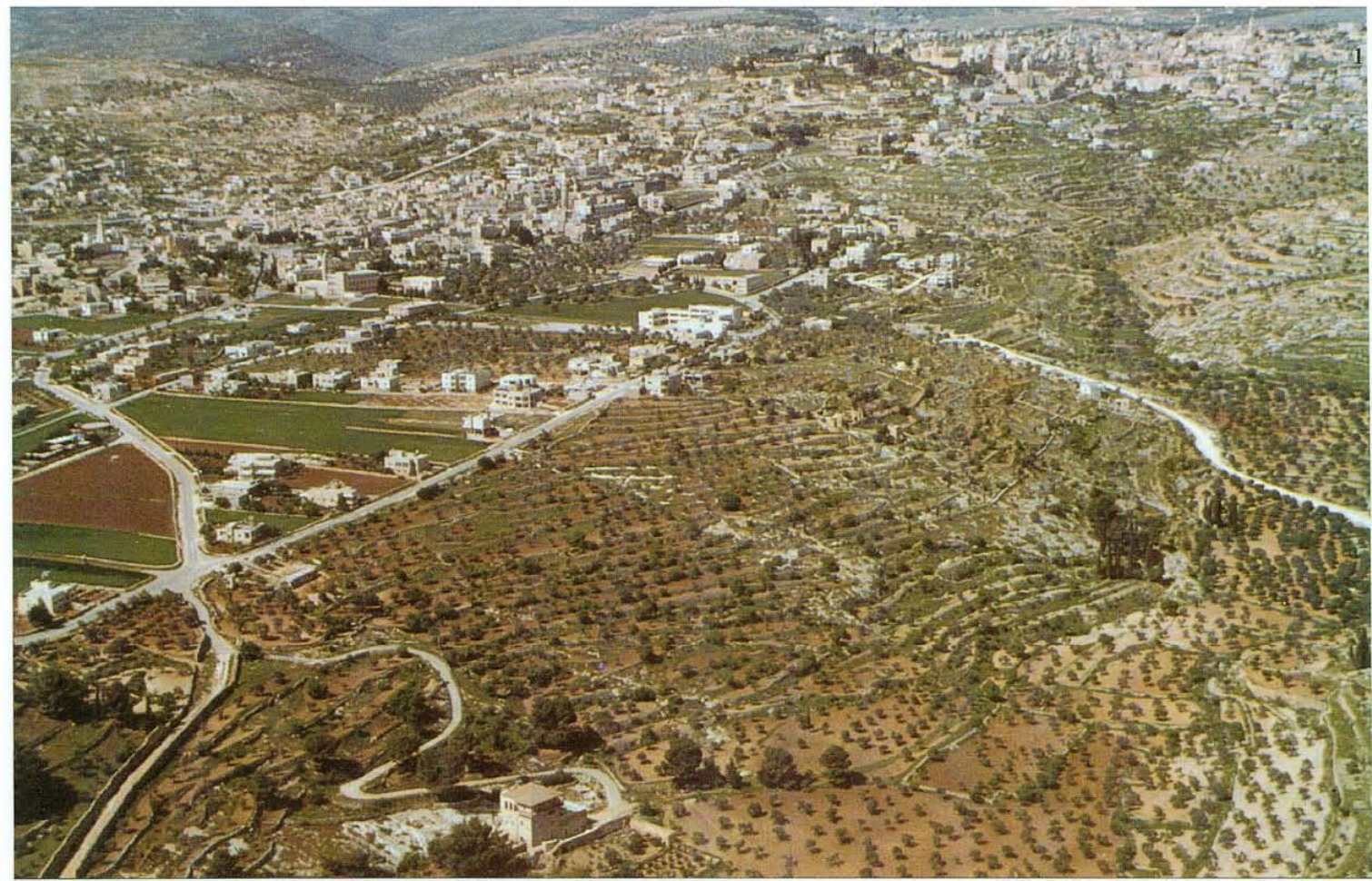


가지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 들어온 이래로 영적으로 강한 동기를 받았기 때문이다. 틴티 자매는 성전에서 일하기 전날인 1985년 1월에 자신이 받은 시현을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 하루 일과를 끝낸 직후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수많은 죽은 사람의 해골을 보았으며 그 다음에 어떤 인디언 여자를 보았는데 분명히 옛날 시대의 사람으로서 뚜렷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문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틴티 자매는 자신이 경험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안고 한 동안 잠이 깬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성전으로 갔을 때 침례받는 일을 지명받았는데 그곳에서 바로 그 문을 보았다.

이 57세 된 성전 봉사자는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 위하여 그 여자를 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녀의 생애에서는 세상적인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이다. 최근에 그는 교회 지도자 한 사람과 이야기하던 중에 자녀에게 남겨 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순종의 모범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물려 줄 것입니다.” □



예수님이 생활하신 땅

데이비드 에이치 가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성역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러한 성역은 너비 60~150킬로미터 사이와 길이 250킬로미터가 채 못되는 좁은 땅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비록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은 보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의 가르침과 지상에서의 경험은 그가 살았던 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어망, 땃들, 성전 벽 등은 그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의 주제였다. 수가, 다불 산, 갈릴리 바다 등은 그가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셨던 장소였다.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 중에는 세리, 어부, 귀족들이 있었다.

메시야가 사시던 땅은 어떤 모양이었는가? 이번 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어린 시절에 사셨던 장소들과 골고다에서 그의 성역을 마치신 때의 사진을 게재할 것이다.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의 다른 사진은 다음 호에 게재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리차드 클리브 박사의 그림 보관소와 데이비드 에이 가너의 개인 소장품에서 사진을 제공해 주고 있다.

1. 유대의 베들레헬

“요셉도… 갈릴리에서… 베들레헬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누가복음 2:4~7)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베들레헬 출신은 아니었을지라도 룻과 보아스의 옛 동네(룻기 1:2; 2:4)에서 어린 예수가 탄생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성취한 것이었다.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가 5:2) “하나님의 떡” 그리고 “생명의 떡”이로 불린 그가 히브리어 용어로 떡의 집이라는 의미를 지닌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신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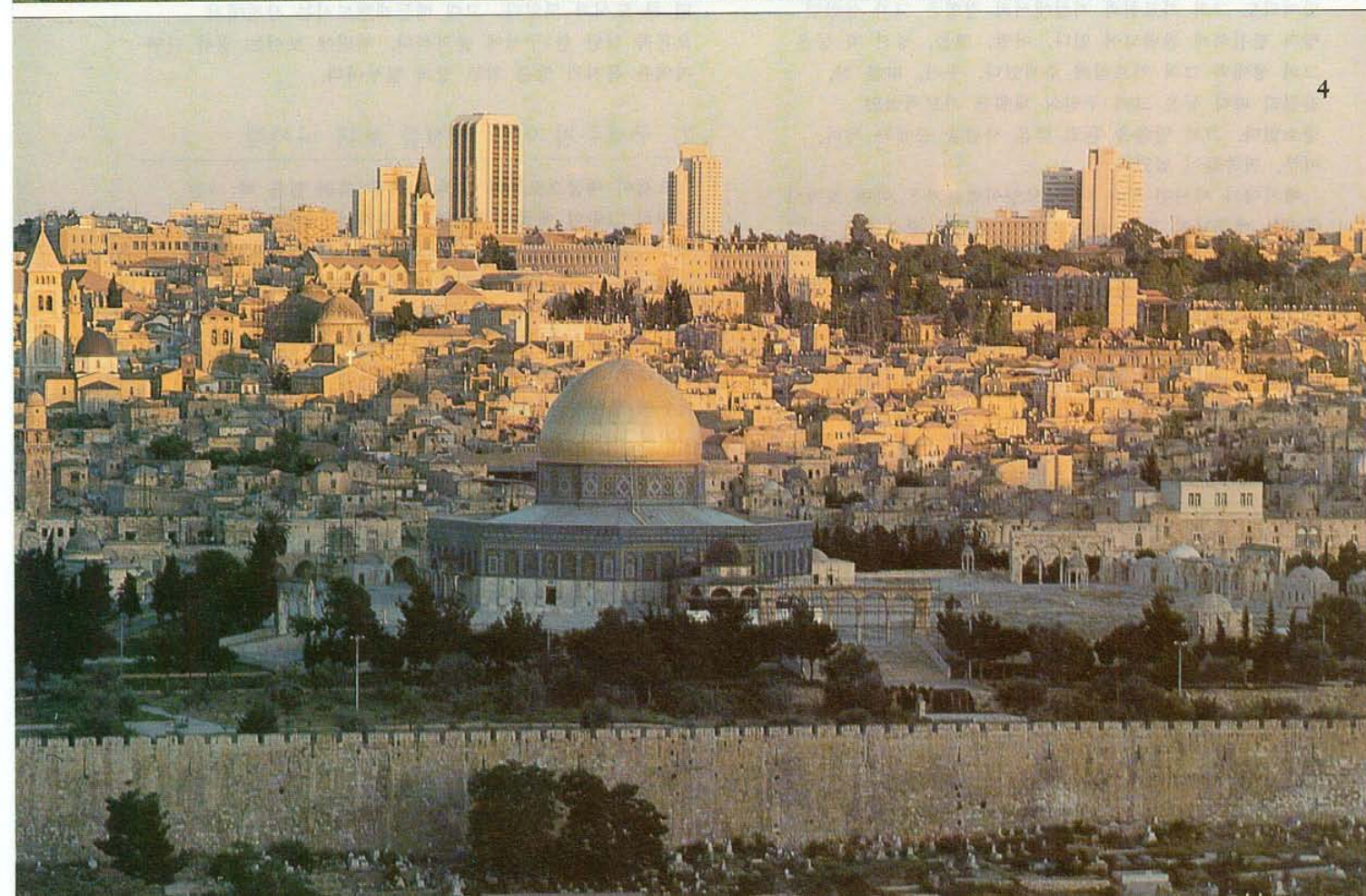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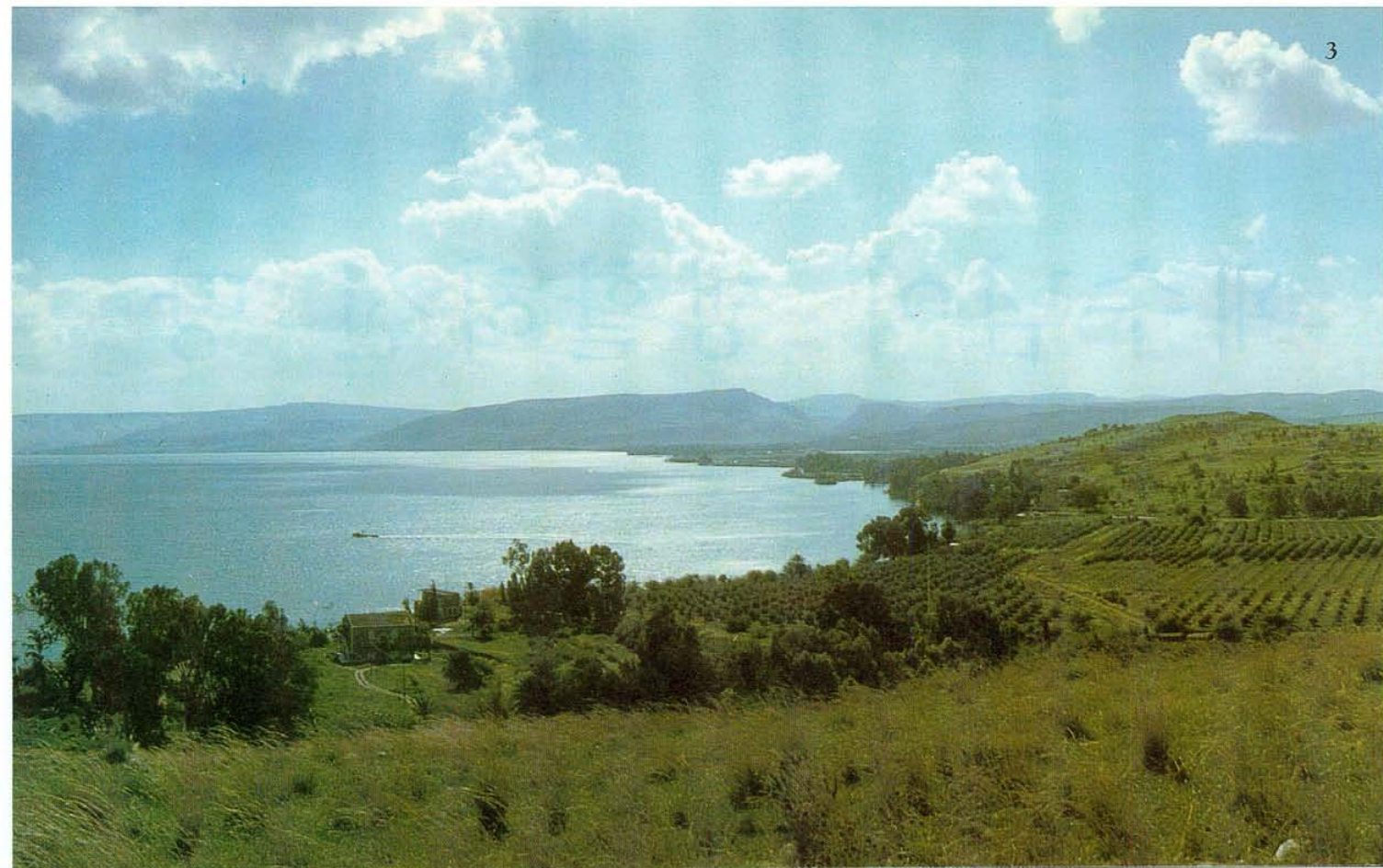
오늘날의 베들레헬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보다 훨씬 더 큰 도시가 되었다. 고대 베들레헬도시는 사진에서 오른쪽 상단 한 구석에 불과하다. 전면에 보이는 경사 단면 지역은 목자가 양을 치는 땅의 일부이다.

2. 구세주가 어린 시절을 보낸 나사렛

요셉이 애굽으로부터 그의 가족을 데려 왔을 때 그는 분명히 그들이 애굽의 땅으로 탈출하기 전에 살았던 베들레헬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했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마태복음 2:22~23)

거의 600년 전 니파이이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가...나사렛 성도 보았으며...한 처녀를 보았으니 지극히 희고 아름다움더라...눈을 들어 그 처녀를 봄에 어린 아이를 팔에 안고 있더라.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니파이일서 11:13, 20-21)

비록 그 도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사셨던 때보다 오늘날이 훨씬 더 크지만 여러 면에서 성읍의 원래 모습들이 남아 있다. 거리는 작으며 오래된 상점들이 나란히 들어서 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거래를 하고 세상 얘기를 나누고 있다. 방어벽들이 지금도 고대 시장터와 우물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시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태복음 17:5

3. 갈릴리 해변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갈릴리 바다 주변 해안가 땅들은 아주 비옥하다. 기온은 산지는 시원하지만, 그 지역은 대체로 매우 덥다. 때때로 언덕으로부터 낮은 지역으로 강하게 부는 차가운 바람은 호수 수면 위로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불러일으킨다.

각종 매매업에 종사하는 상인들로 붐비는 가운데,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아홉 개의 도시가 있었으며, 그 중 세 도시에는 예수님 당시로는 큰 수였던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호수에서 구세주께서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포함한 많은 기적들을 수행하셨다. 해변가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악마를 쫓으시고, 공개적으로나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그의 사도들을 선택하셨다.

4. 평화의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산을 서쪽에서 보면 중앙에 있는 회회교 사원으로 특색을 이루고 있다. 헤롯의 서쪽 성전 들부지는 왼쪽 편에 회회교 사원 너머에 있다. 성전 자체는 회회교 사원부지에 있었거나 그 근처 오른쪽 편에 있었다. 이 지역은 성전 산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십 육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한복음 2:18-21)

5. 다불 산

갈릴리 아래 쪽에 있는 독특한 산의 하나로 다불 산이 이스라엘 골짜기의 평야 위로 둥근 머리를 내밀고 있다. 이 산은 그리스도께서 변형하신 장소로 추정되는 곳의 하나이며, 마태가 “따로 높은 산”(마태복음 17:1-2 참조)이라고 묘사한 것과 일치한다.

1979년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그 산을 방문하시고 몇 시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곳이 바로 예수께서 그의 세 사도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이 높은 산에 올라 어떤 축복들을 주신

곳임을 확신합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 모인 순간 매우 따뜻한 영을 느꼈으며,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느꼈습니다.”(킴볼 대관장이 목자의 들에서 열린 성찬식에서 행하신 메시지의 녹음 테이프에서 발췌)

6. 갯세마네 동산

갯세마네 동산은 실제로 구세주와 그의 사도들이 군중과 도시의 소란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 때때로 찾아간 감람 동산이었다. 이 옛 감람 나무 또는 그것이 솟아난 뿌리는 2000년 전이나 심지어는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 필경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의 무게로 고통 가운데 괴로와 하시던 그 엄숙한 밤에 대한 말없는 증인이 되었을 것이다. 성찬의 의식을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누가복음 22:41-42,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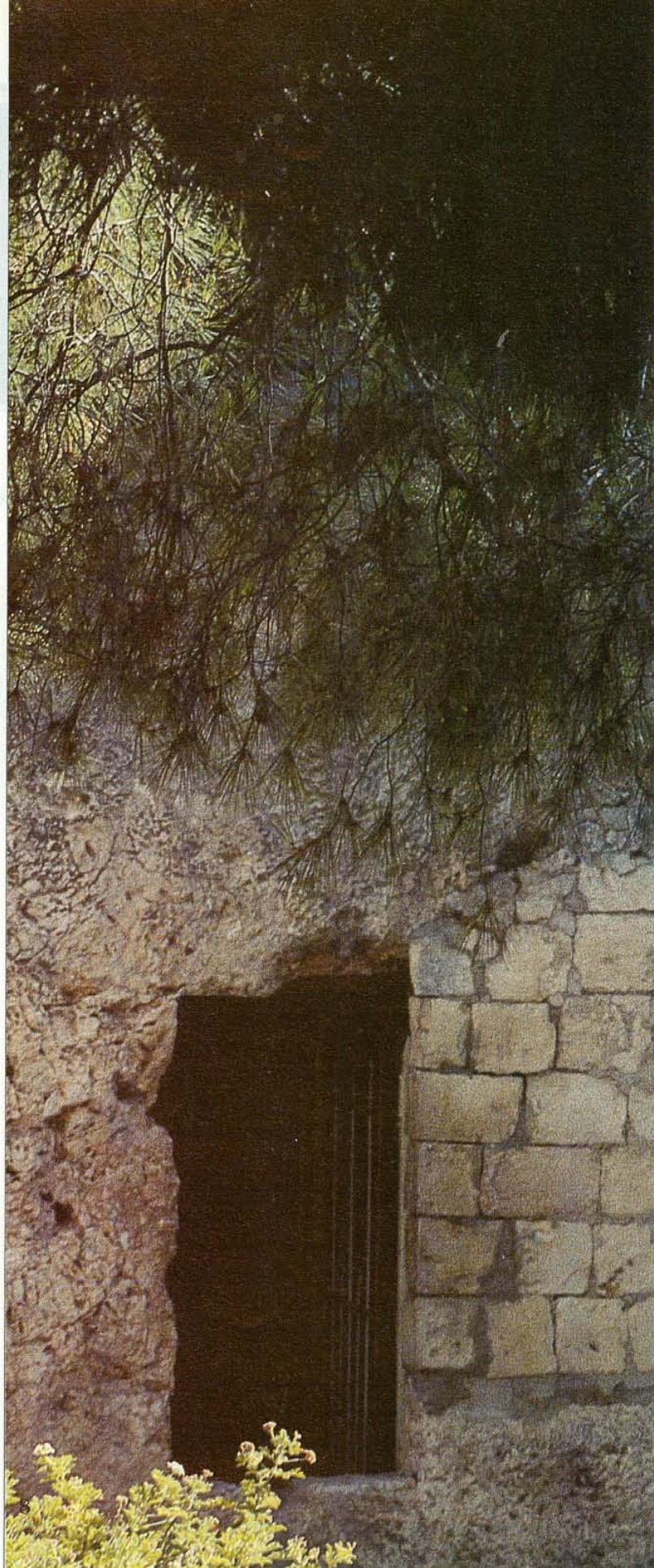
7. 골고다

“빌라도가...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때가 제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마가복음 15:15, 22, 25) 사진의 중앙에 있는 골고다라는 비랑의 정면에 해골의 형상이 새겨진 것같이 그곳을 죽음의 장소로 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

8. 예수님을 누인 곳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썬은 것을...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예수를 거기 두니라”(요한복음 19:38-42)

사진에 있는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이 놓이신 실제 그 무덤으로 강력히 여겨지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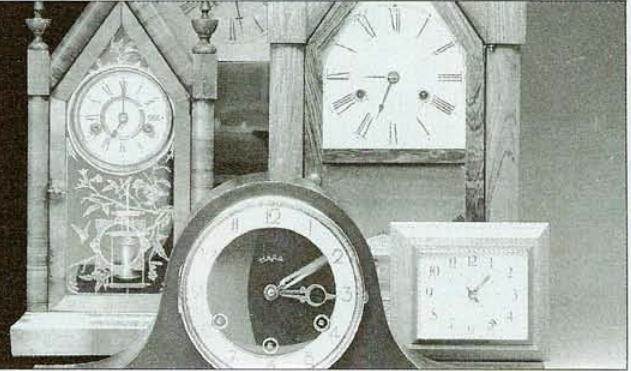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6

방문 교육 메시지

“천하에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목적 : 우리가 지상에서 맡고 있는 청지기 직분 가운데는 현명하게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포함되었음을 이해함.

말

일성도 여성으로서 우리는 수많은 역할과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우리가 맡은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아내 ; 어머니 ; 교회 부름 ; 가정 및 때로는 관리해야 할 초채원 ; 요리 및 가능할 때에는 식품 저장, 바느질 ; 개인적인 경전 공부 ; 정기적인 일지 작성 ; 매일의 운동 ; 외부 직장이나 가내 부업 활동 ; 노인을 공양하는 책임 등.

우리는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교성 58 : 27 참조)해야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모든 훌륭한 대업에 동시에 다 참여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어떤 여성은 의로운 자녀를 키운다든지 병원에 가서 자원 봉사한다든지 대학 학위를 받는 일, 계보 조사를 하는 일, 선교사로의 봉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목표를 안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추구하면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바바라 윈더스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저에게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저는 오래 살았거든요.’라고 대답합니다. 진실로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만일 내 아이들이 어려서 아직 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면 지금 내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서 하고 있는 일을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자신만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은 모든 것을 [동시에]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통 어떤 자매는 어떤 한가지 일을 하고 또 다른 자매는 또 다른 것을 하고 또 다른 자매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야 마침내 그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때때로 우리는 조금 더 맡게 되는데 아마 그것은 우리가 그

과정에서 배운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는 완성된 작품이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 화가는 계속하는 동안 중간의 윤곽을 수없이 그리고 있다. 여성이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라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시각화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나중에 하도록 미루어 두는 것이 최상인 목표를 지금 달성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대신 “인생의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

어린 자녀가 넷이나 있는 자매가 계속해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갈망한다면 쓸모없는 일이다. 선교사가 계속해서 어머니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면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전도서 3 : 1)

우선 순위, 헌신, 열망에 의하여 우리가 전혀 반대 방향으로 끌려갈 때가 흔히 있다. 우리는 주님의 영에 의지함으로써 자신이 올바른 진로를 선택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주님의 왕국에서는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 “그런고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성 64 : 33)□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성취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아직 실현하지 못한 목표가 있는가? 그것은 정말로 너무 늦은가 아니면 그저 좀더 어려울 따름인가?
2. 상호부조회 공과 및 자매들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개인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그가 계시는 곳으로 다시 데려다 줄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도록 강화시켜 줄 수 있는지 토의한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단 엘 서얼



존 헌터는 자기 부친이며 파사테나(캘리포니아) 스테이크 부장인 하워드 더블류 헌터 부장이 스포츠 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의 부친은 1959년 가을 밤에 브리검 영 대학과 유타 대학이 미식 축구 시합을 하는 동안 줄곧 선수들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몰끄러미 시합을 관전하며 이상하게 몰두하고 있었다. 하워드 헌터는 아들에게 몇 시간 전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과 접견했던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하고 있었던 헌터 부장은 그날 모임 사이의 휴식 시간에 맥케이 대관장의 사무실로 오라는 메시지를 받고 놀라지 않았다. 그는 대관장단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대관장이 보고를 듣고 싶어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맥케이 대관장의 인사는 놀라운 것이었다. “아, 여기 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내일 형제님을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헌터 회장은 교회 지도자로서 폭넓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 부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라고 회상한다. 그는 거의 십 년 동안 스테이크 부장을 했으며 그 이전에는 거의 칠 년간 감독으로 봉사했다. 그는 또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스테이크 부장들의 지역 평의회 회장이기도 했다.

하워드 헌터는 맥케이 대관장이 그가 새 부름에서 얼마나 기쁨을 누릴 것이며 그 부름이 그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맥케이 대관장은 그 다음 날 대회에서 그의 이름을 발표하고 지지할 때까지는 부인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

그때 클라라 메이 헌터[클레어]는 칠십 이 킬로미터 떨어진 프로보로 가서 최근에 헌터 부부의 첫 손자를 낳은 존과 그의 아내 루인 집에 가 있었다. 헌터 장로는 “클레어”에게 그 소식을 전화로 알려 주었으나 그가 그 말을 하자 두 사람 다 감정이 격해졌으므로 전화기에는 침묵이 흘렀다.

“나는 오후 모임에 가서 앉았으며 그 책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초조해서 그곳에 앉아 있을 수 없었으므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헌터 회장은 회상한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그 새 부름이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보냈다.

그 부름은 그가 법률 관계 일과 또 부인과 함께 거의 삼십 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쌓아 올린 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헌터 회장 부부는 그들이 치를 희생에 대하여 생각하면서도 또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성전에서 성약을 맺은 것에 대하여서도 생각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맹세를 존중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늘 그들은 그렇게 했다. 헌터 회장은 책임을 떠맡고 그대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했다.

하워드 윌리엄 헌터는 1907년 11월 14일 아이다호주 보이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존 윌리엄 헌터와 넬리 마리 라스무센 헌터의 두 자녀 가운데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훌륭한 부이었으나 하워드가 소년 시절이었을 때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하워드 여동생은 하워드가 집사 신권을 받고 워드 소년단 모임에 참여할 나이가 되고 나서야 침례받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부친은 1927년에 마침내 교회에 입교했으며 결국은 가족과 함께 인봉을 받았다.

하워드는 예의바른 젊은이로 알려져 있었으며 같은

연령의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봉사하려는 열의가 넘쳤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의 “조용하고 친절한 방식으로” 행할 따름이었다고 누이인 도로시 헌터 라스무센이 말한다. “그는 나에게 매우 잘해 주었으며 나는 내 오빠가 평생에 잘못된 일을 한 것을 한번도 못보았다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인다.

하워드는 소년 시절에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웠으며 혼자서 몇 가지 악기를 더 배웠는데 그 중에는 고등학교 때 어떤 대회에서 받은 마림바도 포함된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만든 밴드에서 연주 활동을 했다.

그는 1926년에 졸업한 다음 와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와싱턴 대학에 잠시 등록했다. 그러나 그가 최근에 조직한

“한터즈 크루네이더즈”라는 밴드가 유람선인 에스에스 잭슨 호에서 연주하도록 계약을 맺었으므로 그 밴드와 함께 오 개월 동안 아시아로 여행을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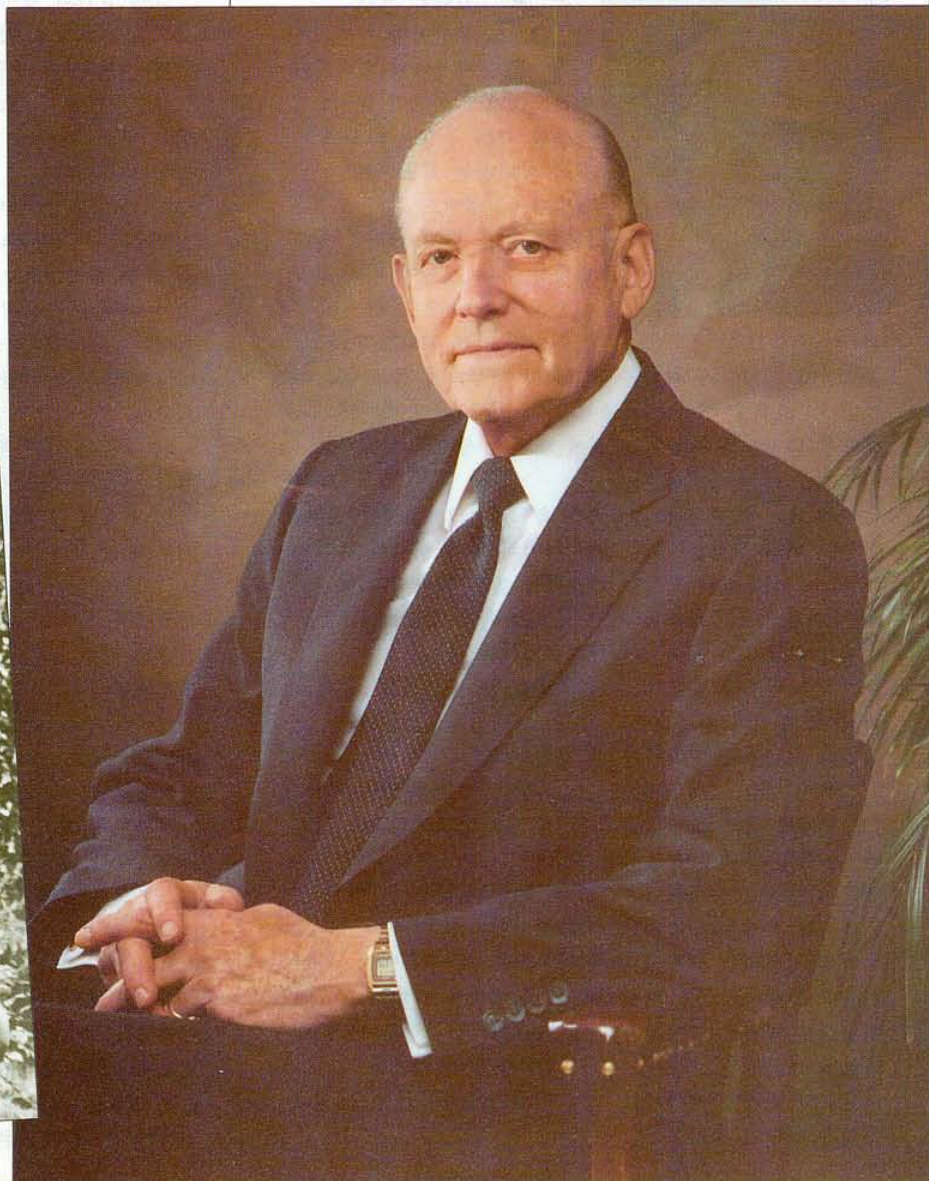
하워드는 그 여행이 끝난 다음 그 밴드의 피아노 연주자 가족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부 캘리포니아로 갔다. 그는 그 지역이 마음에 들어서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그는 어떤 은행에 취직했으며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연주하여 수입을 보충했다.

그가 클라라 메이 제프를 만난 것은 교회 무도회에서였다. 그녀는 전에 모델을 하다가 열심히 일하여서 어떤 유명한 로스엔젤리스 의류 가게에서 인사 담당 책임자까지 올라간 사람이었다. 그들은 대부분의 데이트 시간을 교회 활동에 참여하며 보냈다.

하워드는 직업적인 약사로 인생을 보낼 계획은 전혀

왼쪽 : 소년단 시절 열세 살 된 하워드 더블류 헌터.

오른쪽 : 1959년 이래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헌터 회장.



없었으므로 클레어와 결혼할 때가 다가오자 음악가의 불확실한 직장과 근무 시간으로서는 그가 원하는 가정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1931년 토요일,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직업 악사로서의 연주를 한 다음 악기를 모두 싸서 처분하고 성전에서 결혼하기 위하여 솔트레이크시티로 갈 준비를 했다.

헌터 형제 부부의 결혼을 주례한 총관리 역원이 그들에게 몇 가지 충고를 해주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 충고는 빗지지 말라; 전액을 치를 돈이 생길 때까지는 아무 것도 사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훈계를 따랐으며 결혼 생활 내내 그것을 지키며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1930년대 초기의 대공황 때 하워드가 일하던 은행이 파산했을 때 그 충고가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헌터 형제는 일자리를 잃었으나 빚은 없었으며 곧 다른 직장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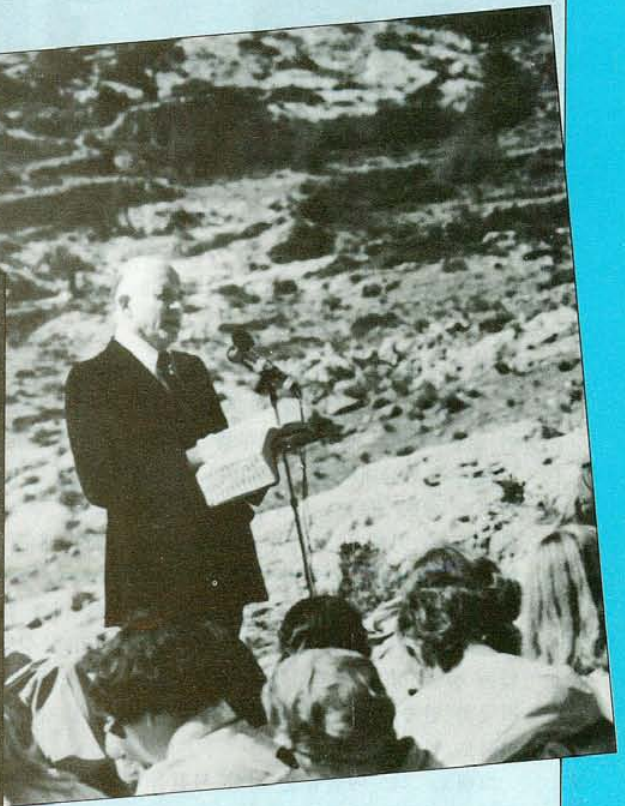
하워드가 1934년부터 시작하여 법률 학교에 가기로 결정한 것이 헌터 부부에게는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헌터 회장은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하루 여덟 시간 일하고 대부분의 수업은 밤에 들었습니다. 공부는 밤과 주말에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두 시까지 공부했다. 그런 후 그는 좀더 일찍 자고 새벽 두 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이 덜 피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기간이 그의 사회 진출과 교회 일과 가족 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을 쌓는 데 도움이 된 매우 힘든 훈련 기간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수석으로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주 법률 시험에 합격하여 1939년에 법률 업무를 개시하였다.

왼쪽: 아이다호 보이즈에서 어린 소년 시절의 헌터 장로.

중앙: 음악은 헌터 장로의 생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여러 종류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배웠으며, 수년 동안 그 자신의 악단을 이끈 전문 음악인이었다.

오른쪽: 1978년 10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목자의 들에서 가진 성찬식에서 말씀하는 모습.





위쪽 : 1961년, 캘리포니아 산타로자에서 젊은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헌터 장로.

오른쪽 : 헌터 장로 부부.

헌터 부부의 세 아들 하워드 윌리엄 이세(아기 때 죽음), 존, 리처드는 그가 법률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태어났다. 이 젊은 변호사는 법률 업무를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41년에 파사데나(캘리포니아) 스테이크의 새로 조직된 엘 세레노 워드 감독으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영향력 즉 가족과 교회가 법률가로서의 여러 해 동안의 경력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 시절은 바쁜 시절이었다. 그는 1950년대에 파사데나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았으며 로스앤젤리스 성전을 짓고 있는 동안 성전 위원회에서 봉사하였다. 그는 또 그가 지극히 만족한 사업상의 친분을 통하여 여러 기업체의 이사로 임명되었다.

그래도 그는 아들들을 위한 시간을 냈다. 그가 아들과 함께 즐겨했던 특기할 만한 활동 가운데는 집에서 만든

카약(카누형 보트)을 타고 물살이 빠른 오레곤 강을 타고 내려가는 그들의 소년단 활동이 있었다. 헌터 회장은 그 강에서 막내 아들과 짝이 되었다. 대부분의 다른 카약처럼 그들의 카약도 그 여행 끝까지 견뎌내지 못했다. 리처드는 아직까지도 아버지와 함께 폭포를 거슬러 올라갔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헌터 회장은 캠핑을 즐겨했다. 그 소년들은 아버지와 함께 여러 번 집 근처의 미개발 지역 땅에 있는 숲에서 캠핑을 했다.



하워드는 여행하면서 캠핑하는 것도 좋아했다. 존과 리처드 두 사람 다 한밤중에 기차 소리와 기차 헤드라이트가 그들을 향하여 곧바로 질주해 올 때 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기차는 바로 앞까지 와서 방향을 바꾸었는데 그들에게서 육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을 지나갔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야영하느라고 가차길 밑 부분에 침구를 깔았던 것이다.

헌터 회장은 그의 아들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침묵 가운데

가르쳤다. 리차드는 “제가 정직과 성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 가운데는 사람들이 우리 부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여 알게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어느 토요일에 부친과 함께 가까운 마을로 아버지의 사업상 회의에 함께 갔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얼마 후 사업가 한 사람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하여 그 방에서 나왔으며 그 사람과 리차드는 그 모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리차드는 관련된 법적 서류가 몹시 많기 때문에 현재 토의하고 있는 사업이 시작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사람은 그렇지 않으며 그 토의에 참여한 사람은 하워드 헌터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든지 그대로 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서류 처리가 끝나기 전에 확신을 갖고 일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헌터 장로는 가능하면 언제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의 자녀와 가족을 방문하기 위하여 굉장한 노력을 해왔다. 존이 로스 앤젤리스에서 법률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헌터 장로는 교회 지명으로 지나가는 일이 있을 때에는 방문하도록 일정을 만들었다. 그러면 존은 좀 나이를 더 먹은 아이들을 데리고 공항으로 그 아이들의 할아버지를 모시러 갔다. 그런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존의 큰 아이들을 헌터 장로를 “공항에 사는 할아버지”로 알게 되었다.

손자들이 자라서 그중 몇이 대학 교육을 받는 동안 유타주에 살 때 헌터 장로는 그들이 연차 대회나 기타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솔트레이크시티 교외의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는 가장 큰 손자인 로버트는 “헌터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은 남편의 모범을 생각하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헌터 장로의 사랑하는 아내 클레어가 병들었을 때 가족은 그가 팔 년 이상이나 아내를 간호하는 것을 사랑과 찬탄 속에서 바라보았다. 그 병이 마침내 1983년에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결속을 정말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로버트는 말한다. 헌터 장로는 아내가 여러 번 마비에 걸려서 점점 더 남에게 의존하게 된 여러 해 동안에 가능한 한 직접 아내를 간호할 것을 고집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교회 임무를 계속해서 처리했다. 그는 가벼운 심장 마비에 걸렸으나 그런 일로 인하여 열의가 약해지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그의 여동생이 말한다. 여동생과 다른 사람들은 그가 허락할 때에 클레어를 돌보는 일을 도와 주었다.

마침내 그가 간호실에 아내를 두고 떠날 수 밖에 없을 때에는 교회 임무로 여행할 때까지도 자주 그곳에 전화를 해서 아내의 상태를 확인했다. 교회 사무실에서 하루 일과를 끝내거나 마을 밖으로 여행하고 돌아올 때는 아내에게 가보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아내가 더 이상 그와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방문해서 계속해서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로버트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언제나 서둘러서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옆에 있고 할머니를 간호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아내를 위해서 많이—정말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라스무센 자매가 강조해서 말한다.

헌터 회장은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의 부인은 남편이 저야 하는 짐을 지도록 도와 주는 “조용하고 지지하는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말한다. 사도의 부인은 자주 말씀해야 하고 간중해야 하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방법으로 공헌해야 한다. 남편이 그의 부름에서 성공하도록 “큰 공헌”을 한다.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한다. “지난 이 년 동안 나에게서 그렇게 해주는 아내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내가 죽을 때까지는 아내가 얼마나 큰 지지와 영향을 주는지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그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병든 기간 동안 또 아내를 잃은 이래로 그를 뒷받침해 준 사랑이 또 있었으니 그것은 아내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힘을 주고 지지해 주고 유쾌하게 해주었다. 그것은 그의 정원회 회원들의 사랑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 사이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생각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랑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과 교제함으로써 겸손과 인내와 더 큰 신앙과 이웃의 사랑을 배웠다고 설명한다. 또 그런 자질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더 큰 소망을 키워 준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는 사반 세기 이상의 기간 동안 이

교회가 위를 향한 길을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는 지금 성전 및 계보 평의회 부회장으로서 여러 해 동안 교회 계보 프로그램과 친분을 맺어 왔다. (또 가족의 계보를 수집하는 데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의 아들 존이 보고한다.) 몇 년 전에 헌터 장로의 지시 아래 몇 가지 목표와 지침이 확립되었으며 그것이 아직도 교회 계보과가 나아갈 길을 가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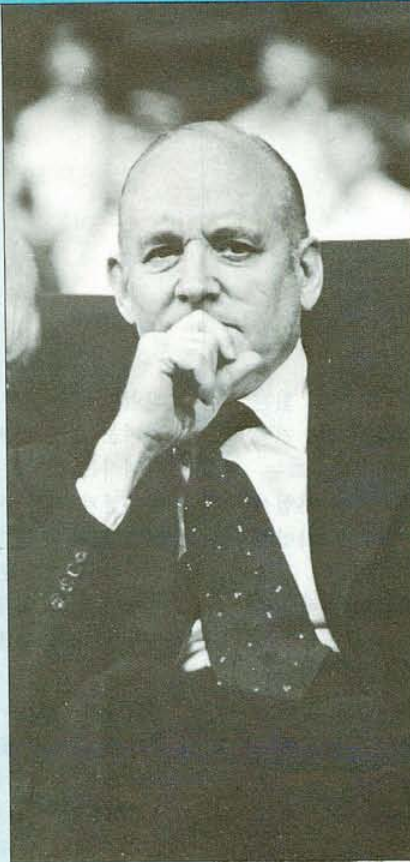
헌터 회장은 교회 교육 위원회 위원 및 브리감 영 대학교 이사회 회원으로서 교회 교육 기구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교회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특히 소년단 프로그램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는 서 유럽 선교 책임자로 봉사했으며 교회 소유 및 교회 활동에 관련되는 몇 가지 거대한 산업체와 부동산 업체 및 여러 조직의 책임자로서 그의 사업 경험을 활용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말일성도의 사랑을 받게 한 것은 그의 각 개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의 조용한 간증의 힘이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바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의 아들 리차드는 이렇게 말한다. “부친께서는 사람과 그들의 환경을 기억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 한가지로 그가 몇 년 전에 만난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놀랄 만큼 기억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현재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잘 조화된 사람들과 매일 함께 일하는 특권을 누리 왔다. 그는 “그런 간증을 가진 사람들과 친분을 맺으면서 자기 자신의 간증을 쌓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그 여러 해 동안 헌터 장로는 자신의 간증으로 남의 간증을 쌓아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1959년 10월 11일, 그가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지지만은 다음 날 연차 대회의 폐회 모임에서 간증한 것을 이제까지 그의 인생의 삼분지 일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재확인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도구로 하여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확고하고



양보할 수 없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이 참되다고 하는 영속적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주저없이 이 부름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내 생애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 봉사를 위하여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그는 성실과 사랑으로 그 맹세를 지켜 왔다. □

오른쪽 : 멕시코 페허에 있는 고대 성전 방문시의 사진. 헌터 장로는 맨 오른쪽에서 있다. 그 옆에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가 있다.

위쪽 : 연차 대회에서 명상에 잠겨 있는 헌터 장로.



순종할 신앙

샌드라 스텔링스



볼

리비아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처음으로 극도의 빈곤에 접하게 되었다.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로부터 십일조와 또 일요일에 일해야 하는 시간을 희생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들 가운데는 일주일에 칠 일간 하루 열두 시간씩 일하면서도 생활비조차 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나는 십계명과 십일조의 법을 가르치면서 당황할 때가 많았다. 어떻게 그들이 일주일에 칠 일이 아니라 육 일간 일하고 그들의 수입의 90퍼센트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것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사 개월 반 동안 나는 이러한 의문의 해답을 받지 못한 채 지냈다. 그러다가 산타 크루즈라고 하는 열대성 도시로 전근을 가게 되었으며 그 전근과 더불어 새로운 동반자를 맞았다. 후르타도 자매는 검은 피부에 짧고 검은 머리, 빛나는 눈빛을 하고 있었으며 키가 다섯 척도 안되었다. 그 자매는 선교사가 된 지 일주일도 안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선교 사업에 관하여 많이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함께 일한 첫 일주일 동안 어떤 가족에게 십계명에 관한 토론티를 가르쳤다. 그 가족은 일요일에는 남편과 부인과 한 명의 아들이 모두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에서 일하였다. 나는 전에 이들에게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도록 권고했으며 그들은 가게를 돌보지 않는 아들만 교회에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교회로 보낼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그들에게 십계명을 지킬 결심을 하도록 제의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흔히 듣는 낯익은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생필품을 사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었다. 축복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월례 가게 예산에 반영될 수 없는 무형의 축복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당황했다. 그러자 나의 새 동반자가 겸손하게 자기 가족이 계명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후르타도 자매의 어머니는 과부로서 그들의 집에서 운영하는 가게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네 자녀를 부양했다. 일요일이 바로 그 가족이 대부분의 일을 하는 날이었다. 그들은 극장 건너 편에 살고 있었으며 극장에 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게에 들러 먹을 것을 사갔다. 그들은 또 큰 통에 담겨 있는 조리용 기름도 팔았으며 그들의 고객은 언제나 일요일에 왔다.

선교사들이 가족을 모두 가르치고 침례를 주었다. 그들이 침례받은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후르타도 자매는 어머니에게 누가 집에 남아서 가게를 돌볼지 여쭙어 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문을 닫는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회원이며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후르타도 자매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다가는 가장 좋은 손님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상기시켰으나 주님과 그의 성약을 존중하겠다는 어머니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들은 그 일요일과 또 그 이후로 매주 일요일에 가게를 닫았다. 후르타도 자매가 깜짝 놀란 것은 그들이 일요일에 기름을 사던 손님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손님들이 다른 날에 사러 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사실상

그 가족은 일주일에 칠 일이 아니고 육 일간 일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전반적인 매상은 늘어났다.

여러 주가 지나는 동안 내 동반자는 그녀의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차츰 나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앙을 행사하는 동안에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분의 축복은 항상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정말로 도와 주신다.

나는 신앙을 쌓아 그것을 자신의 생활에서 힘으로 만든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으며 그런 예를 많이 발견했다. 코차밤바에서 어떤 여성이 십일조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을 들었다. 그 자매는 지난 달에 십일조와 중요한 경비를 치르고 나자 그 달 식대로 쓸 돈이 일백 페소(약 천원)밖에 남지 않았다. 그 자매는 어떻게 생명을 부지해야 할지 몰랐지만 주님이 마련해 주시리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무엇을 살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장으로 가는 길에 뜻밖에 질녀를 만났는데 시장에 옷을 사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 자매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은 이야기하지 않고 따라갔다.

질녀가 옷을 사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돈 조심하세요!”라고 말했다.

그 자매는 놀라서 몸을 돌려 그 남자가 자기 지갑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려다보았을 때, 자기 지갑 위에 일천 페소가 있는 것을 보았다. 누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거나 소리를 들은 적도 없었다. 그 돈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았다.

그날 그 질녀가 점심을 같이 하자고 초대해서 그 자매는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누이 한 사람이 그녀에게 채소와 감자를 한 자루 주고 또 다른 누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그녀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었다. 그 자매는 그 달에 넉넉하게 살았다.

이런 실제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사람들이 십일조를 내거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신앙을 쌓고 그것을 시험해 보도록 도와 주기만 하면 되었다. 그들이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쌓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이 당면한 문제나 상황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볼리비아에서 본 수많은 신앙의 힘의 예를 자주 기억한다. 나는 십일조를 낼 경우 식량을 살 돈이 없을 것이 분명해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은 한번도 없었다. 내가 받는 유혹은 그보다 좀 더 미묘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그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먼저 있으면 그 신앙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축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할 때 힘을 얻는다. □

작가인 샌드라 스탠링스는 솔트레이크시티 와드의 상호부조회 제 1 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이야기해 봅시다

“순종할 신앙”을 읽은 후 다음 질문과 개념을 생각하거나 토론해도 좋다.

1. 내가 순종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같이 생각되는 계명이나 복음 원리는 어떤 것인가?
2. 더 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어려운 계명에 순종하는데 필요한 희생을 어떻게 치를 수 있을 것인가?
3. 과거에 순종에 대한 주님의 축복을 어떻게 경험했나?
4. 주님의 축복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인가?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종류의 축복을 받는가?
5. 순종하려는 결심을 함으로써 순종할 능력을 보상으로 받을 때가 흔히 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어떻게 자신의 생활 속에 넣어 시험할 것인가?



구스타브 도어의 조각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제프리 알 홀랜드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찬송가 114장)라는 말로 시작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하여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위대하신 여호와로서, 그의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지상의 창조주로서, 온 인류의 수호자로서 전세에서 맡으신 역할에 놀랍니다. 우리는 그가 지상에 오신 것과 그가 강림하실 때의 주변 환경에 놀라게 됩니다. 그가 잉태되었을 때의 기적과 그가 태어나실 때의 빈곤에 놀라게 됩니다.

그가 열두 살밖에 안되었을 때 이미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는 것에 놀랍니다. 우리는 그의 성역의 본격적인 시작과, 그의 침례와 영적인 은사에 놀랍니다.

그가 어디에 가시든지 악한 힘이 먼저 앞질러 갔으며 그들이 처음부터 그를 알아본 것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시고 중풍환자를 일으켜 세우실 때 악한 세력을 쫓아내시고 처음순 것에 놀랍니다. 아담 시대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세대가 당연히 해야 하듯이 우리는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순간에나 모두 진실로 놀라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성역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놀라움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갈보리 꼭대기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올라가신 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 : 34)라고 말씀하신 것에 가장 큰 놀라움을 느낍니다.

내가 정말로 놀라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려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하셨나”가 아니라 “그가 왜 그렇게 하셨나?”라는 의아심을 갑니다. 그분의 자비와 비교하여 나의 생활을 살펴보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해야 할 만큼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더 높은 차원의 놀라움입니다. 나는 그분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만 나도 제한된 면에서나마 병고치는 일에 약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다 더 작은 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기적이 우리 자신의 생애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받은 신권의 범위에서 반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용서와 대속과 화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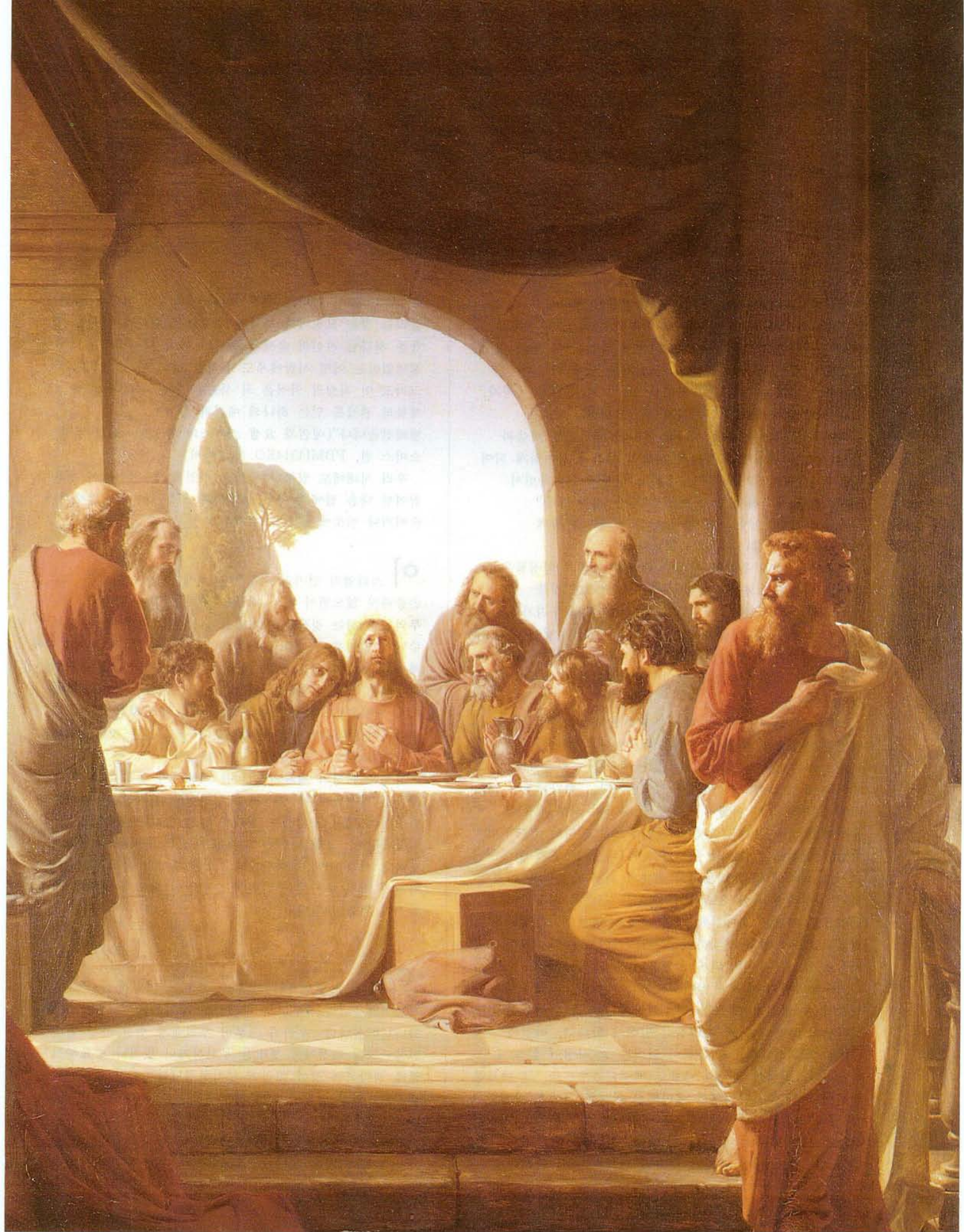
그가 그 순간에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 모든 고통 중에서, 모든 구멍에서 피가 나오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정말로 완전하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의도하고 계신다는 또 하나의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분은 산상 수훈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 : 44)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죽은 자를 살리고 눈 먼자의 시력을 되살리고 마비된 손을 굳건하게 하라는 명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또는 내 자녀를 또는 내 손자를 해친 사람, 특히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보고 웃으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담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존경과 찬사와 찬탄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었으나 박해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그분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저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떼의 첫 새끼를 주께 드리는 제물로 마지라”(모세서 5 : 5)고 명하셨습니다. 천사가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모세서 5 : 7)

이런 희생 제물은 아들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받으실 굴욕과 고난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입을 여시지 않을 것이며 양치림 학살자에게 끌려가시리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모사이야서 14 : 7 참조) 그것은 모든 기독교인의 생활의 특징을 이룰 온유함과 자비와



친절함과—그렇습니다, 용서—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유와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깨끗하고 흠없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그 양의 첫 새끼들이 매년 매 세대마다 그런 들제단 앞에 바쳐져서 완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양, 그의 유일한 독생자, 그의 장자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륜의 시대에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반영하는 상징적 제물인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성 59 : 8 참조)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항상 그를 생각하여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그리하여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교성 20 : 77) 약속합니다.

아담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주님의 희생의 상징물은 우리가 평화롭고 순종적이고 자비롭게 생활할 것을 기억하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오래 참음과 인간적인 친절로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 보일 것을 기억하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세기에 걸쳐서 우리 가운데 이 의식을 합당한 방법으로 이용한 사람은 적습니다. 가인이 제일 처음으로 주님이 열납하실 수 없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보내실 그의 아들의 은사로써 하나의 희생 제물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인간이 불순종으로 쫓겨난 그때부터 주님의 면전에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희생의 율법은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이 속죄의 신앙 또는 구속의 계획에 대한 신앙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고 그 제물은 열납되었는데 양의 첫새끼였습니다. 가인도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으나 열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까닭은 그가…하나님의 계획과 상반되도록 그 자신의 신앙을 역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 흘리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속의 계획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이 하나의 예표로 제정되었으므로, 그 예표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희생을 판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표에 어긋나는 희생을 드리면서 신앙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을 뿐더러 구속의 권세도 그런 순서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모방이나 하나의 예표로서 행해지지 않는 한 혹은 하나님 자신의 은사를 통하여 바쳐지는 것이란 설명없이 어떤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의 의식은 죄 사함을 위한 위대한 희생 제물의 권세를 받는 하나의 예건과 함께 행해졌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PBMI4314KO, 58페이지)

우리 시대에도 일부 사람들은 가인과 좀 비슷해서 성찬에 참여한 다음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싸우거나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이웃에게 화를 냅니다.

이 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은 희생 제물의 의미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주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아멜렉인으로부터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사무엘은 크게 번민하여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사무엘상 15 : 15, 22)

사울은 희생의 제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충실하게 성찬식에 가지만 더 자비롭고 인내심이 많고 용서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말일성도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이런 의식이 제정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의식에 참여합니다. 그런 의식의 목적은 우리가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순종적이 되고 온화하게 되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래 전에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투기하는 하나님이십니다—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그의 독생자의 생명을 무시하거나 잊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투기하십니다”(멜빈 제이 벨라드, 의의 십자군,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66, 136~137페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것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있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으려는 소망을 보이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는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용감한 기도에 대하여 영원한 감사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2)… 우리가 성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리스도의 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야 하는 나의 형제의 짐은 그의 외적인 상황[과 환경]뿐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의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는 유일한 길은 그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용서는 기독교인다운 고난으로서 그 짐을 지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디트리히 본회퍼, 제자가 되는 대가, 제 2편, 뉴욕: 맥밀런, 1959, 100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무서운 순간에도 그분은 그것이 바로 그가 영원을 통하여 전하려고 오신 메시지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일 그가 부당함과 잔인함과 불친절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인간에게 용서를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잊으셨다면 구원의 계획을 모두 다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여건에서는 유쾌해 하고 참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언제나 유쾌해 하고 참고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과 이웃 가운데 부당하고 불친절하고 기독교인답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런 범법을 한 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제발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용서하는 짐을 지는 것이 공평한 일인가라는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공의”에 의하면 그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묻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공의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자비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베풀려고 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모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아마 가장 숭고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행동은 불친절하고 부당한 것에 직면하여서도 더욱 더 진실되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을 향한 어려운 길입니다.

어떤 훌륭한 스코틀랜드의 목사는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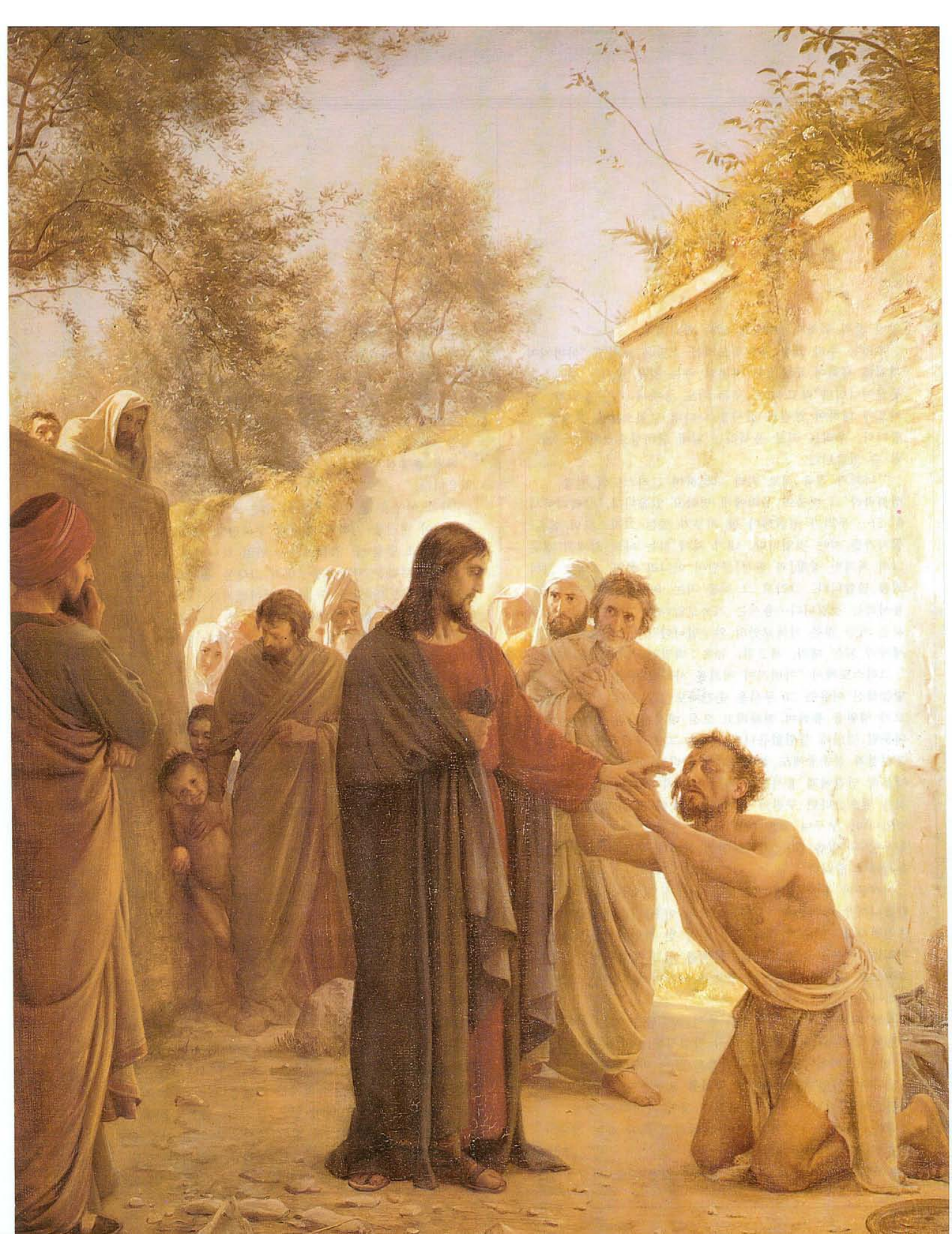
“자기 이웃을 용서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이 자신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려고 한다거나 원하신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대를 용서하노라.’고 말씀하신다면 또(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만일 그 용서의 음성이 그 사람에게 도달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 말은 그에게 ‘너는 계속해서 미워해도 좋다.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너를 굉장히 괴롭혔으므로 미워해도 정당하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일 속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으며 어떻게 괴롭혔는가 하는 것을 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또 미워할 구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해 주고 괴로움의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조지 맥도날드, 명문집, 시 에스 루이스 편, 뉴욕: 맥밀런, 1947년 6~7페이지)

블과 몇 년 전에 솔트레이크 공항에서 어떤 극적인 장면을 본 것이 생각납니다. 나는 이 특별한 날에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건물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공항에는 누가 보아도 선교사의 친구와 선교사의 친척인 것이 분명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곧 어떤 선교사가 귀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선교사의 직계 가족들을 찾아 내겠다는 생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몸에 잘 안 맞고 조금 구식인 옷을 입고 어딘지 좀 어색해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햇볕에 타고 일하다가 상처를 많이 입은 큰 손을 가진, 흙에서 사는 사람같았습니다. 그의 흰 와이셔츠는 약간 낡았는데 아마 일요일 이외에는 한번도 안 입었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고된 일을 한 것같은 상당히 여윈 어머니가



오십삼로 이음사 운구팀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나는 그것이 한때는 틀림없이 명주 수건이었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화장실 휴지같이 보였습니다. 귀환 선교사의 어머니만이 알 수 있는 기대감으로 인하여 그 수건은 거의 휴지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세 명의 동생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들 곁을 지나 비행장 정문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생애에서 특별한 인간 드라마 가운데 하나야. 좀 기다렸다가 보자.” 그래서 나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하여 그 군중의 뒤로 갔습니다. 승객이 비행기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환영하는 사람들로 부터 제일 처음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호기심에 사로잡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어머니의 손수건을 보는 순간 아마 어머니가 그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 동안 그 귀환 선교사가 비행기의 계단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무리가 환성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그가 바로 그 귀환 선교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깨끗하고 잘 생기고 깨끗하며 키가 크고 모로나이 대장같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 선교 사업으로 인하여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했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외모와 똑같은 바로 그런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여행에 대비하여 머리를 깨끗하게 깎았으며 그의 양복은 낡았으나 깨끗했으며 약간 낡아가 된 그의 비옷은 아직도 어머니가 그렇게 자주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그 추운 공기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단의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공항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니었으며 옆에 서 있던 여자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 체격이 크고 약간 어색하고 말이 없는 구리빛의 거인이 공항 직원 옆을 지나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선교사는 육 척이 넘는 장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는 땅으로부터 들어올려 오래, 아주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안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청년은 가방을 떨어뜨리고 양팔로 아버지를 껴안았으며 두 사람 모두 아무 말 없이 꼭 껴안고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한 순간 동안 솔트레이크시티 공항이 온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그 거룩한 순간을 존중해서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이 봉사하기 위하여,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희생을 치르기 위하여, 자기 비용으로 즉, 배풀기 위하여 그의 온 생애 동안 모아 둔 것을 모두 들여서 나가는 것을 지켜보시는 것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그 귀중한 순간에 아버지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감동적인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또 승리하고 돌아온 아들이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한정된 상상력으로도 하늘에서 그렇게 다시 상봉하는 것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순간을 충분히 만끽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화해와 용서와 자비와 기독교인으로서의 성장과 기독교인다운 성품을 쌓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나같이 이기심과 범법과 짜증과 조급함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기쁜 소식”을 올바르게 알아 들었다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또 기꺼이 계속해서 바라며 노력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특권을 허용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정말로 기회가 있습니다.

주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
나와 같이 오만한 영혼을 살리려...
죄값 인해 못박혀 피 흘리셨으니
그 자비 사랑 헌신 내 어찌 잊으리
영화로운 보좌에 무릎 꿇 때까지
경배하고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업적은 훌륭하셔라
(찬송가 114장)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1985년 11월 24일 솔트레이크 성전 봉사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부터

청소년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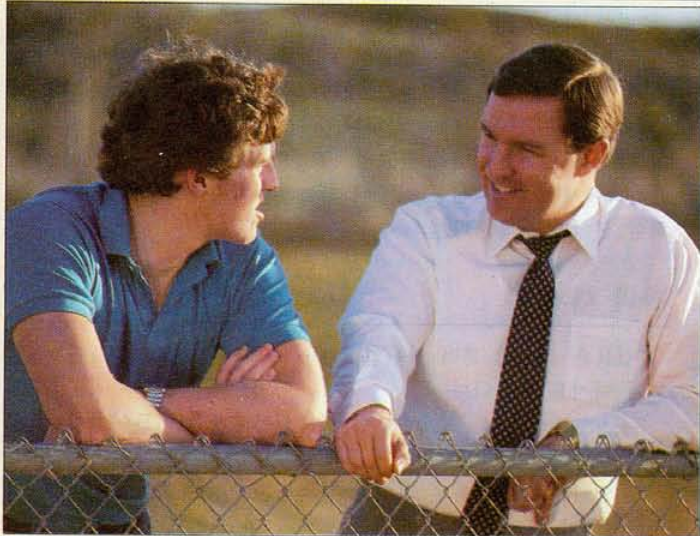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 : 17)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감독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
관리 감독



우리는 감독을 그의 관리 역할에 있어서 성찬식 때 워드 관리 신권 역원으로서 단상에 앉아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가 우리 각 개인과 갖고 있는 개인적인 관계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독은 과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을 집과 병원으로 방문하고 그들의 필요 사항을 돌봅니다. 감독은 또 이 생에서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강화시켜 주고 우리의 신앙과 자유 의지를 발전시켜 준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우리의 많은 문제점을 들어주고 우리가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도와 줍니다.

감독은 누구입니까? 그는 어떤 부름과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독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합니까?

감독과 열쇠와 의무

먼저 감독이 봉사하도록 부름받고, 성임받고, 성별받을 때 받는 열쇠를 이해한다면 우리와 감독이 어떤 관계를 지녀야 하는지 좀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교회 전역의 지부장에게도 다 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아론 신권 회장

감독의 직분과 부름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론 신권 회장으로서는 감독의 부름은 청남과 청녀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독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첫번째 책임이 아론 신권 청남 및 와드의 청녀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감독단은 이 신권의 관리자니, 이 신권의 열쇠 곧 권위를 지니고 있느니라.”(교성 107:15)

“또한 아론 신권을 관리하는 회장의 의무는 사십팔 명의 제사를 통할하며 저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며 성약에 따라 저희 직분의 의무를 가르치는 것이니라.

“이 회장은 감독이어야 하나니, 이는 이 신권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됨이니라.”(교성 107:87~88)

감독에게는 아론 신권 회장이 되는 것 이외에도 네 가지 책임 분야가 있습니다.

관리 대체사

“감독은 와드의 관리 역원입니다... 소속 와드의 회원들이 그의 지시를 받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 위치가 신성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독은 자신이 관리하는 사람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시간과 노력을 바칩니다. 감독은 와드에서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일을 도맡아 하려 해서 안됩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PTMI4325KO], 166, 168페이지)

우리는 감독을 존경하고 그의 훈계를 따라야 합니다. 감독은 교회 업무를 관리하고 우정과 사랑으로 와드 회원들과 우정 증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보통 판사

“또 이 대체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판사가 되며 교회의 업무를 수행하며 교회의 장로 중에서 자기가 선정한 보좌들 또는 선정하게 될 보좌들의 도움을 얻어 율법에 따라 자기 앞에 증거가 제출될 때에 이에 대하여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느니라.

“...감독의 의무는 다음과 같으니,

“곧 저는...판사가 되어야 하나니...시온...사람들 가운데서

보통 판사가 되어야 하느니라.”(교성 107:72~74)

보통 판사로서 감독의 역할은 단순하게 우리의 고백을 들고 우리의 범법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들으려고만 한다면 감독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줍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더 좋은 느낌을 갖게 해주고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안케 해주실 성신의 면전에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회개하고 범법으로부터 돌아서게 해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신의 범법을 극복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실 분은 주님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봄—복지 사업

“감독...순방하여 가난한 자를 찾아 내며 부유한 자와 교만한 자를 낮춤으로써 저들의 부족함에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하느니라.”(교성 84:112)

“감독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히 교리와 성약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는 모든 권세와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이 임무와 책임은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도 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권세와 기능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교회의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명령과 분별력이 감독에게 주어졌습니다...어떠한 도움의 요청이 오더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제이 르우벤 클라크, 매리온 지 롬니 회장이 “복지 사업에서의 감독의 역할”에 인용, 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121페이지)

실무

“감독의 직분은 속세에 과한 일을 모두 집행하는 것이니라.”(교성 107:68)

감독은 와드의 재정, 기록,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은 와드 회원으로부터 십일조와 헌물을 받습니다. 매년 말이 되면 우리는 감독에게 가서 연례 십일조 결산을 하며 그때 우리는 자신이 완전한 십일조를 냈는지 보고합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기꺼이 내는 것은 주님의 계명대로 생활하려는 우리의 영적인 헌신을 잘 나타내 줍니다.

감독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나는 경험을 통하여 감독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가 우리와 주님의 개인적인 관계의 예표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감독의 역할은 교사—조언자 내지 상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독에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떤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감독의 접견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계획을

검토하는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감독과 언약함으로써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거나 우리들의 성전 결혼을 준비하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독을 돕고 감독과 자신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몇 가지 제언이 있습니다.

1. 매주 일요일 감독에게 인사하는 일에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감독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서 자신의 생활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감독이 알도록 쾌활하게 인사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지명받고 있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과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인생에서 자신의 목표에 관하여 감독님과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감독님과 접견을 약속하십시오. 자신의 걱정뿐 아니라 자신의 목표에 대하여 감독님과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독님을 만나기 전에 어머니나 아버지에게도 말씀드린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계획에 있어서도 중요한 하나의 연결 고리입니다. 부모님과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부모님과 여러분 사이에 대화의 문을 열도록 감독님이 여러분을 도와 줄 수 있게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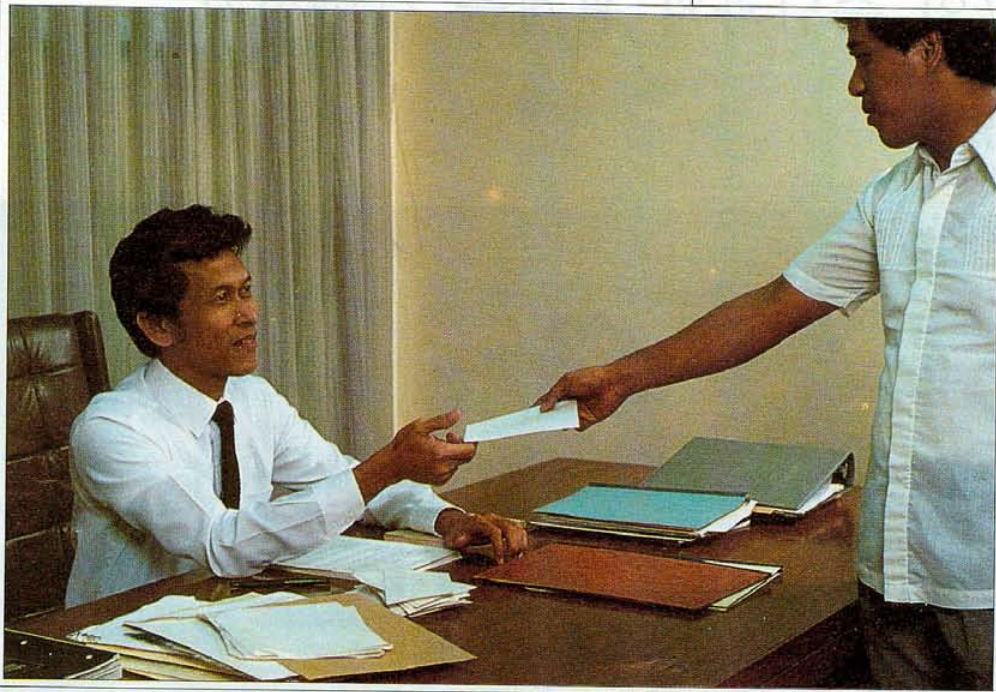
5. 친구를 가르치거나 침례를 주거나 활동 촉진시키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 행할 가장 위대한 선교 사업은 친구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활동적이지 못한 친구나 비회원 친구를 감독에게 소개하십시오. 그들이 감독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하십시오.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는 이런 친구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성신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에게 더 가까이 이끌고 갈길을 생각해 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감독으로 봉사할 때 내가 청소년과 가장 훌륭한 개인적인 관계를 쌓은 것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대화의 문을 열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찬 집행에 참석하기에 합당한가를 결정하는 일에 청남이 참여해야 하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이 거룩한 의식이라는 것과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성찬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합당해야 하는 책임에 대하여 토의했습니다. 나는 누가 참여하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책임을 감독의 어깨에 지우는 대신에 집사, 교사, 제사 각 개인에게 그들이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나에게 와서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신뢰 위에 쌓아 올린 훌륭한 관계를 영위했습니다.

청녀에게도 또 다른 예가 있었습니다. 청녀 회원이 만 16세가 되는 생일이 되면 우리는 데이트에 대한 그 소녀의 생각과 염려에 대하여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상 일요일에 집회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자신과 감독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감독이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감독이 여러분의 청소년 활동에 오도록 초대하십시오. 내가 감독이었을 때 캠핑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나는 버스 뒷자리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자는데 그 입에 야생의 꽃이 꽂혀있는 사진이 어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깃곳은 장난에 가담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내가 양복을 벗고 함께 격식없이 즐기는 시간을 저들과 보낼 때 우리는 더욱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독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지 안다면 감독이 여러분의 특별한 활동에 함께 할 시간을 내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3. 때때로 감독이 여러분의 정원회 모임과 분반 공과에 함께 참여하도록 초청하십시오. 내가 청소년과 가장 보람있게 함께 한 것에는 감독이 공과 시간에 함께 토의하도록 미리 질문을 준비했을 때가 포함됩니다. 비록 감독은 매주 일요일 제사 정원회와 함께 하도록 구체적으로

감독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돕고, 인도하며,
 귀를 기울여 주며, 비밀을 지키며, 또 다른
 여러분의 친구인 주님과와의 관계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감독의 부름은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아론
 신권 회장으로서는
 감독의 부름은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감독은 자신의 첫째 되며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신의 와드에 있는
 아론 신권을 지닌
 청남들과 청녀들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그녀의 영원한 목표를 살피고 그 목표를 그녀의 부모와 함께 토의하고 테이트할 때 그것을 기억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수많은 청년가 나에게 와서 그들의 “그 훌륭한 열여섯번째 생일의 감독 집전”과 그들이 영원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과 주님께 약속한 것을 기억한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세 번 감독으로 봉사했으며 그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감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나이와 인생에서의 단계에 따라 그 동안 달라진 배경과 경험을 그 임무에 도입했을 뿐 아니라 내가 봉사할 때마다 와드의 개인 회원과 와드 전체에 필요한 것이 달랐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보여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엄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와드는 재정에 관한 도움이

필요했고 어떤 와드는 잘 조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어떤 와드는 동료 의식을 느끼는 일만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독은 감독으로 봉사하는 동안 특정한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독이 개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돕고 인도하고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여러분의 인비 사항을 지켜 주고 여러분의 또 다른 친구인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을 강화시켜 주기 위하여 있습니다. 감독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계명대로 생활하고 남에게 봉사하고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시키겠다는 목표와 약속을 재다짐하고 상기시켜 주기만 하면 될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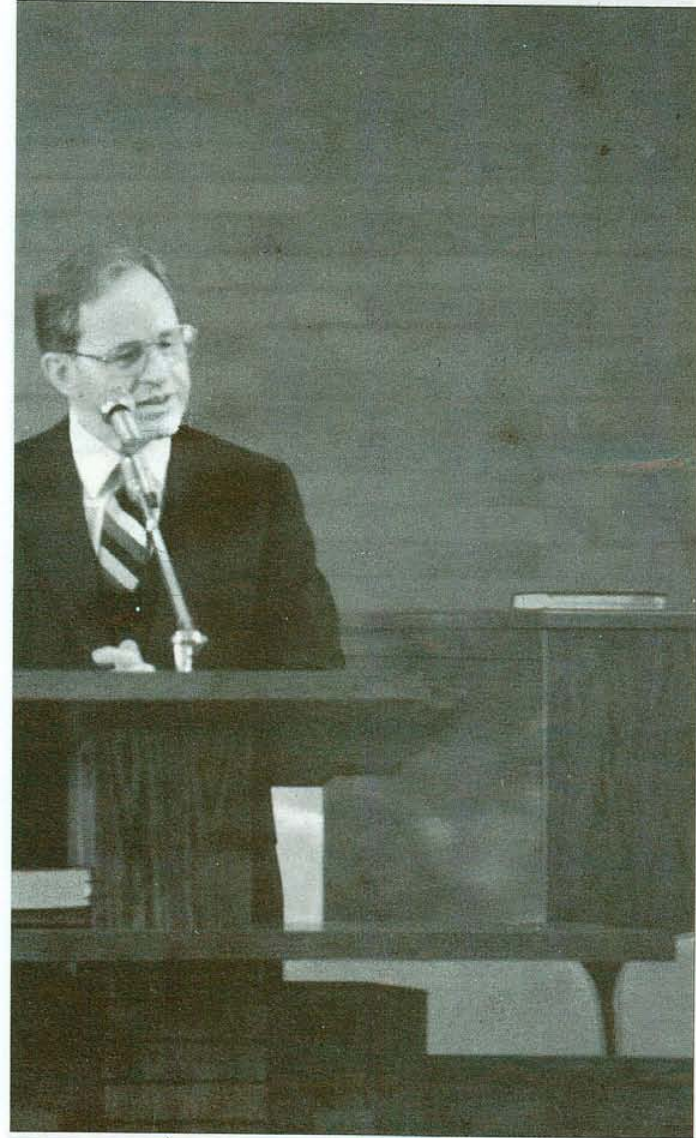
그러나 여러분의 친구로서 상담자로서 판사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시고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회개를 요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감독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문제를 극복할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이며 모든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기회입니다. 일단 감독에게 가면 그의 권고에 항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감독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해답을 찾으도록 도와 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영감을 주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임명한 자의 조언을 들으려...다시는 나의 음성에 항거하지 말라.”(교성 108:1-2)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독은 바쁜 분입니다. 그에게는 와드뿐 아니라 돌보아야 할 가족과 직업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자신의 영원한 목표에 있어서 성공하도록 도와 주고 싶어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특히 우리 교회의 훌륭한 젊은이들과 친분을 맺는 데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의 지도자들이며 언젠가는 여러분이 감독이 되고 감독의 부인이 될 것입니다.

“오 주님의 청년들아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찬송가 133장)라는 찬송처럼. 그날에 대한 준비를 갖추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선 을 향 하



여 성 장 함

리차드 지 엘즈위스

얼

마 전 나는 시집간 딸과 함께 우리 조상이 받은 영적인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 초기의 회원들은 영적인 경험을 참으로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적지요? 우리도 그들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의문을 품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인생에서 간혹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나는 우리의 삶에서 얻는 영적인 경험의 실재와 존재의 가능성과 그 목적에 대하여 간증하고 싶습니다.

나는 영적인 경험은 실재한다는 것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곳에 있게 되면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킬 진리와 권세를 줍니다.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육신의 차원은 우리를 둘러싸고 담고 있으며 우리의 지식의 범위를 초월한 보다 더 큰 실재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내부에는 영적인 차원에 응할 수 있는 하늘의 존재인 우리의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의 존재를 쉽게 인식하는 것은 아마도 악이 우리 영적인 감각에 더 큰 충격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악한 생각이나 의도를 자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은 악으로부터 뒷걸음침

젊었을 때 나는 집을 떠나 미해군에 복무하였습니다. 나의 할머니는 주님의 영은 악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가지지 않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군복무 기간에 악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곳에 내가 가지 않으면 안될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악을 보고 충격을 받는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악의 출현에 무감각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영은 악으로부터 뒷걸음친다는 것입니다.

선도 악과 마찬가지로 감지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충격적이거나 외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선은 강하며 악보다 훨씬 강합니다. 선은 거룩한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참 좋은 느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용서받는 데서 오는 따스한 안도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선한 것과 화음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의 증거와 영원한 진리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강화됩니다.

진리의 증거

예를 들자면, 물문경의 참됨에 대한 증거는 내가 선의 방패로 악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소망을 키운 청년 시절에 나에게 왔습니다. 그 때는 이차 대전 중이었습니다. 나는 젊은 수병으로 워싱턴 시의 아나코스티아 해군 항공 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내가 맡은 일 중에는 적 군함과 적기의 모양과 외형을 식별해 내기 위한 연수 필름 제작을 돕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필름은 거대한 평평한 무대에 모델과 외형과 형태와 기타 장치가 가득 차 있는 커다란 창고 같은 건물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몹시 바쁘게 지냈으나, 전쟁이 끝날 무렵에 우리는 몇 주 동안 아무런 임무도 받지 않고 지냈습니다. 결국 다른 요원들은 각기 임무에 지명되었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나는 건물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장비를 지켜야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즐겼습니다.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은 기분좋은 일이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는 구석에 있는 평평한 제도판 위에 설치된 대가 휘어져 있는 작은 전등을 켜게 되어 있는 한 개의 스위치 이외에는 모든 전기가 끊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원하면 앉을 수 있는 딱딱한 나무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큰 건물 내부의 나머지 부분은 캄캄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바깥으로부터 빛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고 그 넓은 의자를 문간에 놓고 마음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선함은 악한 것과 같이 감지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충격적이거나 놀라운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쉽다. 그러나 선함은 강한
것이며 악한 것보다 더 강한 것이다.

않아 따분해졌습니다.

나는 복음을 가르쳐 준 세심한 부모님의 돌보심으로 교회 안에서 자랐으나 물문경을 끝까지 읽은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한가하게 앉아 있다가 지금이야말로 물문경을 읽기에 좋은 시간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내 탁자로부터 작은 군인용 물문경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탁자 옆의 작은 불을 켜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 니파이는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라는 그 첫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를 지금도 기억합니다.”(니파이일서 1:1)

내 영혼에 확신을 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나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읽었습니다. 선과 진리를 인식하도록 훈련받은 내 영혼은 선지자들의 간증에 응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전에는 한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도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낱말을 한 마디씩 음미하며, 결코 끝나지 않기를 원하면서 읽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전에는 한번도 의식하지 못했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책의 끝에 있는 모로나이의 권고를 읽었을 때 그의 말을 시험해 보려는 큰 열의를 마음 속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그 큰 건물의 문을 닫고 그 안에 혼자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싸늘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낡은 의자의 딱딱한 나무에 이마를 대고 주님께 내가 모로나이의 말을 믿는다고 말씀드리고 나의 믿음을 지식으로 강화시켜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나는 그 때 일어난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권세에 둘러싸인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느낌은 나의 위에 또 나의 온 몸을 통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나의 온 주변을 온통 둘러싸고 있었으며 조용하고 분명하고 말할 수 없이 강력했습니다. 나에게서 그것이 니파이가 말한 생명나무의 열매처럼 희고 달게 보였습니다.(니일 8:15참조) 그것은 완전히 나를 채웠으며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악의 권세처럼 충격을 주거나 불안한 것이 아니라 감미로우며 내 영혼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

실질적이며 영적인 확인인 그런 증거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살더라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문경이 참되거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개척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것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 음악을 듣지 못하고 화음을 즐기지 못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돌아설 필요는 없으며 진실로 반드시 그것을 알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그것은 상속권과 의식의 수행으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말일성도인 우리는 최소한 몇 가지 의식은 수행했으며, 우리에게 영적인 경험의 권리를 주는,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합당하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경험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필요성과 의롭게 되려고 하는 큰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과 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훌륭한 우리 부친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 우리는 계속해서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선을 향해 성장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쁘게 성장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가르치실 때 너무나 자주 그에게 가득 찼던 그 순수한 예지의 영을 얼마나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천사를 보고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우리 증조부의 영적인 직감을 얼마나 기원하고 바라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 때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느껴왔습니다. 우리는 야벳 형제나 니파이나 바울이나 요셉 스미스나 우리 부친이나 증조부처럼 장막이 갈라지게 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미롭고 풍요하고 잇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나는 내 아들을 태어나기 전에 보았음

몇 년 전 어느 날 밤 아내와 나는 우리 집의 거실에서 단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이불 속에서 자고 있었으며 우리는 새로운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신해서 몸이 불어난 아내는 탁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그날 밤에 태어날 것을 알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빛은 희미했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태어날 아기에 대한 사랑의 느낌이 깃들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보고 있었던 것이 생각납니다—아내는 조용히 흔들의자에 몸을 흔들고 있었는데 눈을 감고 창백한 두 손을 펴서 부풀어진 허리에 얹고 있었습니다. 그 방의 아늑한 느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느낌은 대단히 강력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 주변을 온통 둘러싸고 있는 이것을 느낄 수 있소?”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그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때 아내와 함께 사랑스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늑한 친밀감과 일체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 수 있소? 우리는 아들을 낳게 될거요.”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들일거예요.”

그 순간 나에게는 장막이 걷히고 내 아내가 몸을 흔들고 있는 의자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나에게는 그 방에 있기에는 너무 키가 크고 체격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의 존재에는 권세가 있었으며 큰 권세와 선과 인내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 옆에 아들이 서 있는 것이 보이오?”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아늑한 친밀감과 일체감이 커졌습니다. 아내는 확신에 차서 입에 얽은 미소를 띠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가 그곳에 있는 줄 알아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적인 경험은 실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식과 힘을 주며,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고 변화시켜 줍니다. 예를 들자면,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계시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오고 가는 것, 결정을 내리는 것, 사귀는 것, 구혼, 결혼,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일에 있어서 장막 너머에서 오는 그런 도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은 영원한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성취와 승영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혼자 있지 않음

아내와 나는 얼마나 자주 무릎을 꿇고 우리의 필요 사항과 부모로서의 결정에 있어서 지식과 확인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느낌의 변화로써 때로는 부드러운 제언과 통찰로써 때로는 우리 자녀의 생활에 대한 시현으로써 왔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위안과 확신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받았읍니다. 한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받았읍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 생활에 함께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신의 생활의 한계를 넘어 진리를 갖고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상황을 정리해 주셨읍니다. 우리는 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약과 의식과 신권의 권능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의식과 성약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 장막 너머에까지 연결시킬 수 있고 이 생과 저 세상에서의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약을 지키고 의식에 순종할 때, 영원한 결과가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할 때 그는 지키지 않을 수 없다 하셨으니(교성 82:10 참조), 주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심

위대한 본보기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신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신권은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권능입니다. 신권은 심판입니다. 올바르게 사용될 때, 그것은 항상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것은 상황의 재판단과 그 판단에 맞는 변화를 허용하는 큰 구속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려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물러나서 축복을 구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도만 해서는 안됩니다. 영적인 권세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권의 권세가 내게서 나가 축복받는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을 자주 느껴 보았읍니다. 임신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축복받은 젊은 임부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큰 신앙을 갖고 있었으며, 나는 감독으로서 그녀를 축복해 주었읍니다. 나는 권능이 내 팔로 흘러내려 손가락을 통해 그녀의 머리로 전해지는 것을 느꼈읍니다. 나는 그것이 그녀의 전신에 퍼져 발가락에까지 전해지는 것을 느꼈읍니다. 그것은 깨끗케 하며 소생시키는 강한 힘으로, 전기 에너지와도 같았으나, 고요하고 부드럽고 확신에 찬 것이었읍니다. 축복을 받고 난 그녀는 일어나서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발가락 끝까지 그 힘에 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매일 선이나 악을 택함

우리는 이러한 것을 깨닫고, 생활하는 중에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매일 매순간 자신을 선이나 악의 위치에 놓읍니다. 중립의 순간은 없읍니다. 영적인 차원의 깊이와 강도는 모두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끊임없이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자신을 둡니다. 우리는 선을 향하여 성장하기를 택하지 않았다면 악을 향하여 성장할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 있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읍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편이 아닌 사람은 당신을 적대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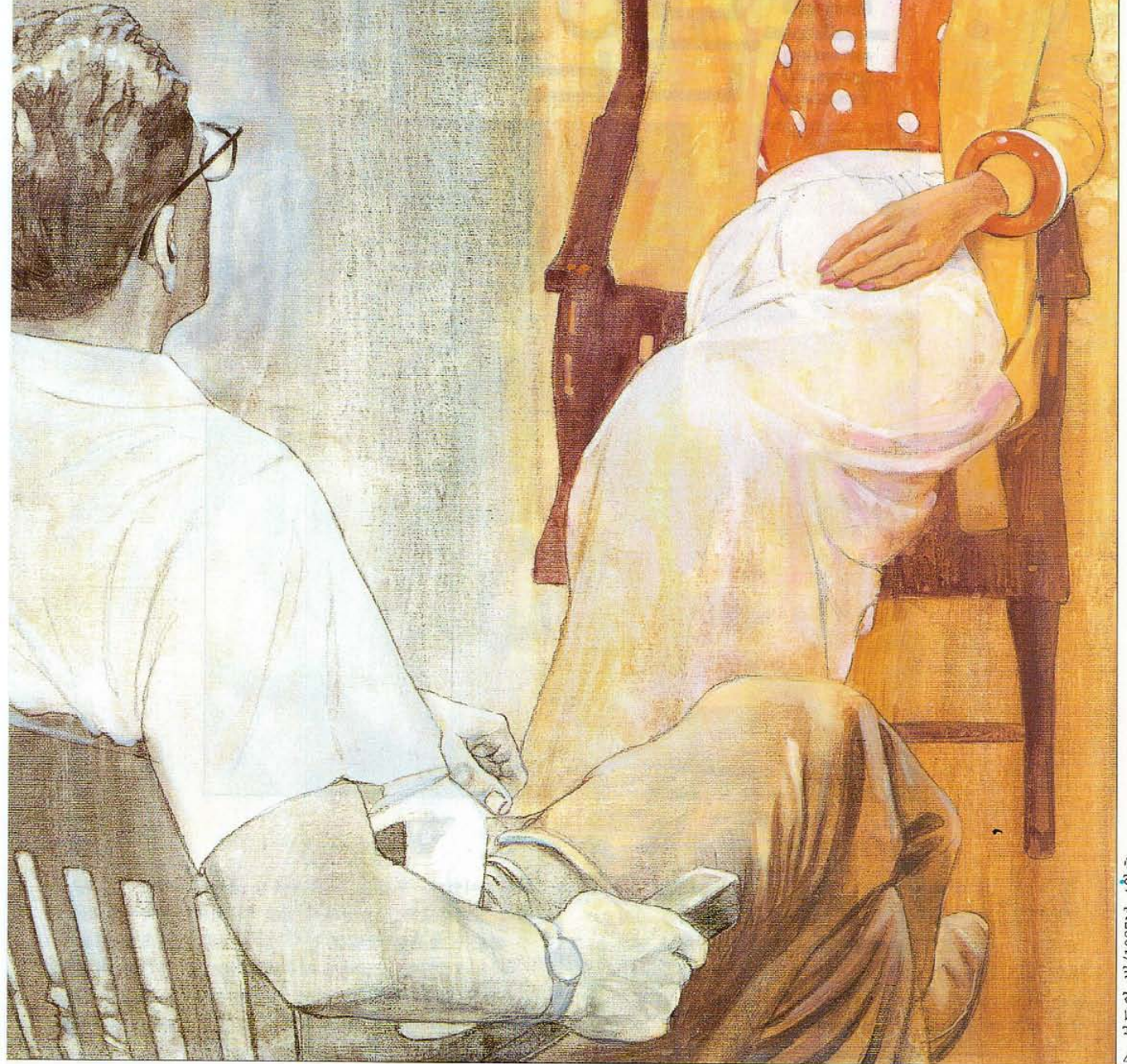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 딸이 우리는 우리 시대에 개척자들과 똑같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사실 그녀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도로 지도입니다. 그것은 모든 정보와 모든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생에서 갖는 권리를 갖게 되는 깨달음과 경험과 지식과 구속력을 갖는 합당한 위치에 서게 되는 방법을 말해 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의 구원에 유익이 되도록 너희가 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시하노라.”(교성 82:9)

주님의 모든 계명은 영적인 진보를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순종하는 정도는 필연적으로 축복이 됩니다. 주고, 섬기고, 이해하고, 비이기적이며, 자비하고, 정직하며, 순결한 것은 모두 영적인 결과가 따릅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며, 심일조를 바치며, 금식의 법을 지키며 항상 기도하는 등—이러한 행위는 영의 것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며 강제적인 수단에 의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영양을 주는 위치로 우리를 완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품고 모임에 가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또 그들로부터 힘을 받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연구하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 이전에 간 사람들의 간증과 경험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을 자격을 갖추고 행할 때 우리는 영적인 확신과 권세와 힘을 받는 직접적인 선 안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해줄 수는 없읍니다. 우리의 개척자 선조들은 영 안에서 생활했으며 훌륭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

1985년 7월 23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행한 영적 말씀

우리가 함께 앉아서
친밀하고 단합된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곧 태어날
아들의 영을 느꼈다.



예, 저는 몰몬입니다



데이비드 케이 스킷모어

나는 동남 아시아에서 아직 전쟁이 계속되고 있던 1973년 여름 미공군으로부터 태국에 있는 기지로 배치받았다. 그날 아내와 어린 두 아이를 남겨 두고 가는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내가 몸을 돌려 기다리고 있는 비행기로 걸어갈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준 것은 우리 부친이 주신 축복에서 받은

확신뿐이었다. 부친은 그 축복에서 내가 “계명에 어긋나는 일에 참여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깨끗한 상태를 간직”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나는 필리핀의 정글에서 생존하는 방법에 대하여 며칠간 훈련받은 다음 태국으로 가서 어떤 전투 비행 중대의 항해 및 무기 관리 장교로 최종 배치를 받았다. 나는 내가 맡은

일을 잘 하고 그 시기가 가능한 한 빨리 지나가게 하려고 결심하고 있었다.

내가 도착한 날 밤 다른 중대원들이 폭격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으며 나는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경축하는 모임에 참석하도록 초대받았다. 나는 다음 십이 개월 동안 나의 “가족”이 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 방으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걱정되었다. 파티가 점점 더 열기를 더해 갔다. 나는 공손하게 술을 거절하고 사이다를 마시며 쿵쿵거리는 음악과 짙은 담배 연기에 둘러싸인 채 조용한 대화 속에 나 자신을 숨기려고 애썼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는 가운데 마침내 바의 카운터에 서 있는 그 중대의 책임자인 대령에게 소개되었다. 그의 팔이 내 목을 감고 있는 가운데 나는 그의 청중이 되어 비행기와 대담한 모험과 과거의 전우들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곧 신호가 주어지고 사람들이 바 주위로 모여들었다. 음악을 켜며 매우 조용해졌다. 매일 행하는 전통 행사를 지금 막 실시하려는 참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매우 독한 술과 라임(과일 종류)과 약간의 소금이 분배되었다. 그 술이 나에게 오자 나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하려고 애쓰면서 조용히 “아닙니다. 저는 음료가 더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중대의 전통이야.”라고 그 사람이 말했다.

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왜 나를? 왜 중대 전체 앞에서? 왜 첫날 밤에?” 나는 자신있는 음성으로 말하려고 애쓰면서 술을 마시지 않지만 사이다를 들고 그 전통에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주위가 더 조용해졌으며 그 중대장의 팔이 내 목을 더욱 강하게 죄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봐, 소위. 나는 귀관에게 이것을 마시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것을 귀관에게 직접 퍼부어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귀관은 이것을 마시게 될거야.”

나는 저항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했다. 나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상했으며 또 다른 중대로 진출 신청하기 위하여 고위

장교에게 찾아가야 하는 불편에 대하여서도 상상했다. 그리고는 다시 나 자신에게 “왜 나를?”이라고 물었다. 팔천 마일의 태양을 건너서 집에 있었으면 하고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모른다. 그 순간 나는 일주일 전에 부친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했다. 나는 그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침묵 속에서 최대한 용기를 내서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실내의 대기가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오늘 밤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령은 몸을 뒤로 제끼고 찬찬히 나를 쳐다 보고는 “귀관은 이것을 마시게 될거야...”

나는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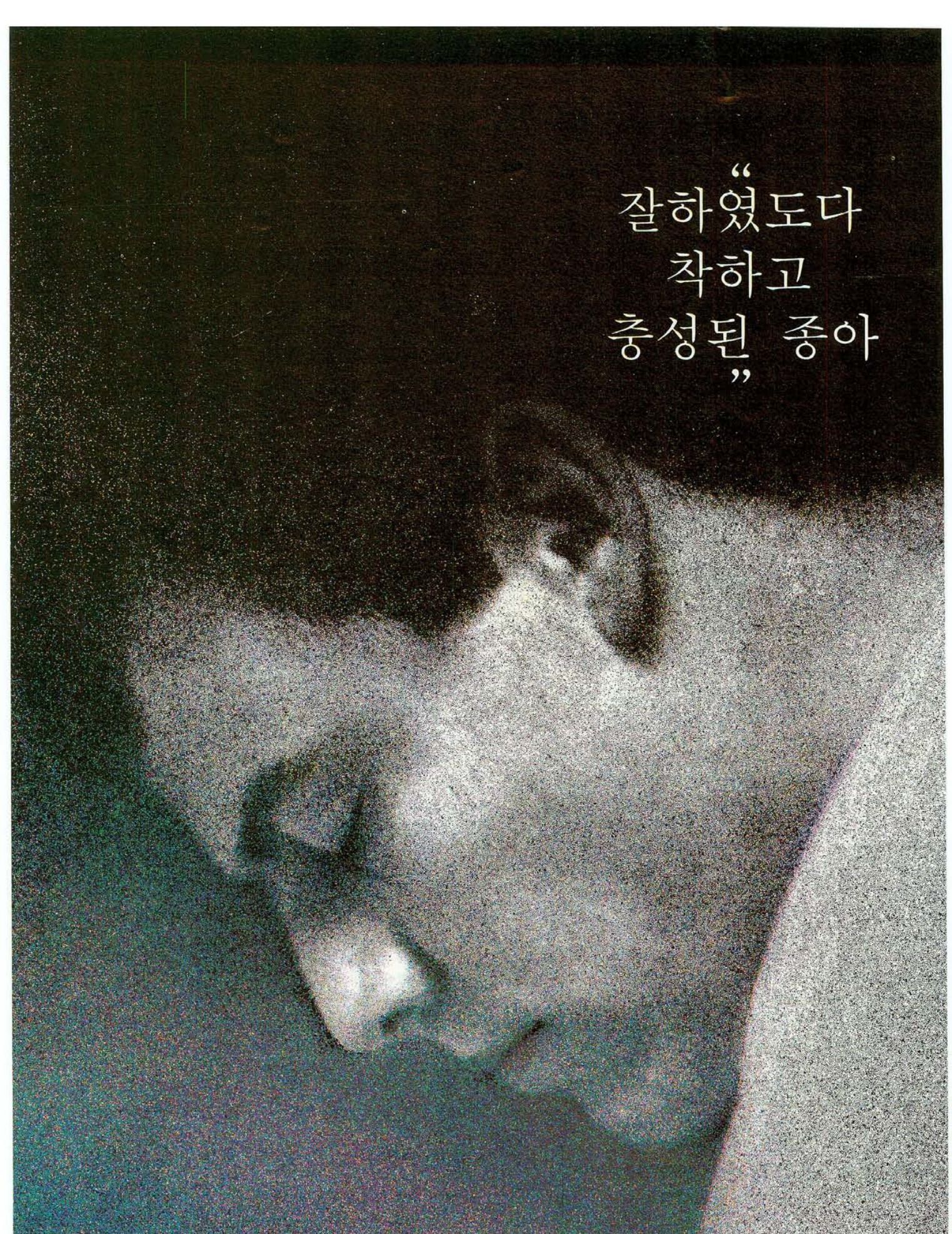
그러자 그가 이렇게 덧붙였다. “...귀관이 물론만 아니라면.”

내 영혼이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른다. 물론 나는 물론이었다. 왜 내가 좀더 일찍 그 말을 하지 않았던가? 나는 내가 술마시지 않는 까닭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 가운데서 그런 계명을 주신다고 믿지 않았던가?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예, 저는 물론입니다.”

그는 내가 단지 물론인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다시 질문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에게는 음료를 주어라.”

나는 그날 밤 늦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배운 그 교훈에 대하여 감사했다. 또 자기 아들을 축복하도록 영감받은 지상의 부친에 대하여 감사드렸다. 이제 나의 확신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다음 십이 개월 동안 중대원 전원이 내가 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게 해줄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 나는 어딘가에서 다른 말일성도가 대령에게 왜 자신이 깨끗한 생활을 하는지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순간 나는 두번 다시 “저는 물론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

“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좋아
”



그 대회는 매우 특별한 선교부 대회로서 우리 선교부장님이 임기를 마치게 되어 우리에게 마지막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부장과 작별하는 것이 좀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으며 여러 해 동안 그에게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확신과 열의를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말씀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로 인하여 나는 그 이후로 여러 번 교회에서의 나의 봉사에 대하여 회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루구아이의 살토시에서 있었던 대회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주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갑자기 주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시킨 것을 다했도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너는 충실했으며 나는 너의 일을 기쁘게 여기느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크게 안도하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가장 침례를 많이 준 사람이나 선교사 토론을 가장 많이 가르친 사람이나 교리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선교 사업이 끝날 때 주님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명한 것을 다했도다. 나는 너의 수고를 기쁘게 여기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몇 주일 후에 다시 이번에는 새로운 선교부장인 진 알 쿡 장로를 모시고 대회를 했습니다. 그는 나와 접견하면서 나에게 훌륭한 영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씀과 또 전 선교부장이 남기고 간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영의 인도를 구했으며 남은 선교사 기간 동안 인간의 영혼을 주님에게 데려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주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임무를 성취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 바쳤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 임기가 거의 끝날 때가 되었을 때 나의 첫번째 선교부장이 느꼈던 그런 느낌 즉 나의 일이 열납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으며 나의 선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인 준비일에 동반자와 함께 어떤 특별한 젊은 가족을 침례주었습니다.

몬테비데오에 있는 선교본부로 돌아왔을 때 쿡 선교부장이 나를 마지막으로 접견했습니다. 함께 기도한 다음 그는 나에게 그와 함께 토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생각했으나 내 일이 열납되었다는 주님으로부터의 확인을 받고 싶다는 나 자신의 소망으로 그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코스타 장로, 주님이 장로님의 수고로 인하여 장로님을 기쁘게 여긴다고 영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장로님이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장로님이 이 문제로 괴로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 문제로 인하여 괴로와하고 있었으나 이제 주님이 나의 선교 사업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확신과 함께 내적인 화평이 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러 해가 지났으며 나는 우리가 우리 수고에 대하여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경험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노력을 평가하고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리하여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아마 바울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을 때 이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디모데후서 4:7-8)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그 날을 기뻐할 수 있도록 생활하기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태복음 25:21)□

